

# 칼빈 신학의 목적으로서의 예배

-칼빈 신학에 있어서 참된 예배의 의미-

WORSHIP AS THE PURPOSE OF CALVIN'S THEOLOGY  
- THE MEANING OF THE TRUE WORSHIP IN CALVIN'S THEOLOGY -

亞細亞 聯合神學 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 專攻

金 國 中

# 칼빈 신학의 목적으로서의 예배

-칼빈 신학에 있어서 참된 예배의 의미-

WORSHIP AS THE PURPOSE OF CALVIN'S THEOLOGY

- THE MEANING OF THE TRUE WORSHIP IN CALVIN'S THEOLOGY -

指 導 한 상 화 教 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2月 日

亞 細 亞 聯 合 神 學 大 學 校 大 學 院

神 學 科 組 織 神 學 專 攻

金 國 中

金 國 中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 審 \_\_\_\_\_

副 審 \_\_\_\_\_

亞 細 亞 聯 合 神 學 大 學 校 大 學 院

2001年 2月 日

## 謝 辭

본 論文을 作成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親切하게 指導하여 주신 한 상화 教授님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2001年 2月 日

金 國 中 드림

## <목 차>

I. 서 론 .....	1
A. 문제 제기 .....	1
B. 연구 방법 .....	4
II. 칼빈과 예배 .....	8
A. 역사적 배경 .....	8
B. 칼빈의 예배 개념 .....	11
C.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배 위치 .....	15
III. 신(神) 지식의 목적으로서 예배 .....	20
A. 신(神) 지식의 원천과 예배 .....	20
1. 계 시 .....	23
2. 성 경 .....	28
B.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 .....	32
1. 삼위 하나님 .....	32
2. 하나님의 사역 .....	37
a. 창 조 .....	37
b. 섭 리 .....	40
C.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 .....	42
1. 인간의 타락 .....	42
2. 예배 법으로서의 율법 .....	47
3. 그리스도의 사역 .....	55
IV. 구원의 목적으로서 예배 .....	61

A. 성령의 사역과 예배 .....	61
1. 그리스도와 연합 .....	63
2. 믿음 .....	67
B.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예배 .....	72
1. 회개의 삶 .....	76
2. 자기 부정의 삶 .....	80
3. 기도의 삶 .....	86
V. 교회의 목적으로서 예배 .....	91
A. 교회와 예배 .....	91
1. 은혜의 외적인 수단 .....	92
2. 선택자들의 공동체 .....	95
3. 예배 공동체 .....	98
B. 로마 교회 예배에 대한 비판 .....	101
1. 교회법의 남용 .....	101
2. 인위적 예배의식 제정 .....	103
C. 참된 예배 .....	107
1. 신지식에 기초한 예배 .....	108
2. 영적인 예배 .....	110
3. 균형 잡힌 예배 .....	113
VII. 결  론 .....	120
參 考 文 獻 .....	124
ABSTRACT .....	134

## I. 서 론

### A. 문제 제기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에밀 두메르그는 칼빈 신학에서 중심 주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칼빈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 주제를 찾아 그 주제에 칼빈 신학을 맞추면 어떤 관점이나 주장도 맞지 않으며 단지 모든 사상들이 복합적이며 전개, 대립, 해소의 양상 속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sup>1)</sup> 그와 반대로 트뢰츠허(Ernst Treoltsh)는 칼빈 신학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보았다. 그는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았다.<sup>2)</sup> 니젤(Wilhelm Niesel)은 칼빈 신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다. 그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sup>3)</sup>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 Warfield)는 칼빈 신학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으로 보았다. 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교리가 칼빈 신학의 중심으로 보았다.<sup>4)</sup> 그리고 벤자민 찰스 밀너(Benjamin Charles Milner, Jr.)는 칼빈 신학의 통일적 원리는 성령과 말씀의 절대적 상호 관계로 보았다.<sup>5)</sup> 한철하 박사는 칼빈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

---

1) 에밀 두메이그,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장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5), 5.

2)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7), 48-49.

3)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3), 242-246.

4) 이양호, 51.

5) Benjamin Charles Milner,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이시므로 신학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아무 것도 남지 않으나 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한다.<sup>6)</sup>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전 역사를 전개하셨다. 한철하 박사에 의하면 칼빈은 그의 신학 사상이 잘 표현된 「기독교 강요」 전체를 신앙(信仰)이라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있다. 즉 칼빈 신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인 창조와 구속이다.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인간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인간이 구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예배이다. 칼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sup>7)</sup> 그만큼 칼빈에게 예배는 귀한 것이다. 칼빈은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칼빈 신학의 중심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목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 신학의 목적은 예배이다. 칼빈은 신학이 참된 예배를 수종들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와 신·구약 주석 전체에 걸쳐 예배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칼빈은 예배가 경건과 구

---

:E. J. Brill, 1970), 4.

6) 한철하, “칼빈 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 사역의 중요성” 「칼빈신학 해설」, 한국 칼빈학회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8), 11-22.

7) John Calvin, 「존 칼빈 원저 성경 주석 구약 4 출애굽기(III)」, 167. 이하에서는 「구약 4 출애굽기(III)」로 표기한다.

원의 이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참된 경건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참된 예배는 경건 생활의 꽃임을 강조한다. 「기독교 강요」와 신·구약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사고와 신학적 노력의 궁극적인 관심이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 있다. 예배는 그의 신학의 한 주제라기 보다는 그의 신학 전체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 목적도 참된 예배를 위함이며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그리고 지상에 교회를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위함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지식에 기초한 예배, 영적인 예배, 균형 잡힌 예배를 통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

예배는 곧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표현이다. 그렇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교회의 폐단을 개혁함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착수한 것이 바로 예배개혁이다. 그들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예배서를 편찬하여 그들이 신앙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sup>8)</sup> 칼빈은 찰스 5세에게 보낸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구원의 근거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9)</sup>

칼빈이 의미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할 때만 가능하다. 그는 신지식에 충실하여 인간이 만든 어떠한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오직 ‘신지식

---

8) 김영재, “한국 교회의 예배와 개혁주의 전통”, 「신학 정론」 17권, (수원: 합동신학 대학원 출판사, 1991), 178.

9) 김재성, “개혁주의 예배의 원리와 갱신”, 「신학정론」, 32집, (수원: 합동신학 대학원 출판사, 1999), 185.

에 기초한 예배'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목적에 충실하게 상한 심령으로 자신이 영적인 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추구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의식과 영적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잡힌 예배'가 드러지기를 원했다. 이러한 예배는 예배의 창조자이며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된 예배를 위함이다. 참된 예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참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구원받은 개인이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할 때만이 가능하다.

## B.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따라 그의 신·구약 주석을 참고하여 칼빈 신학의 목적이 예배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칼빈 신학에 대한 검토를 「기독교 강요」 한 권에 국한할 수 없지만 그의 중요 사상의 핵심이 오랜 수정 끝에 구조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는 지금까지 쓰여진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명료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해석서이다.<sup>10)</sup> 「기독교 강요」가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책이 기독교의 기본

---

10) John H. Leith,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6), 19.

진리를 밝혀 참된 경건을 원하는 열심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에 대한 기본 진리를 밝혀 성경적 예배를 원하는 열심 있는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는 단순히 기독교 진리의 이론적인 해석에 그치는 책이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 예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해주는 예배 지침서이다. 형식상 행동의 지침서로서 꾸민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기초가 되며 교회의 도덕생활의 규범을 위한 기반이 된다.<sup>11)</sup>

칼빈의 신·구약 주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칼빈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2)</sup> 칼빈은 예배에 대한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다. 모세 오경은 첫 4계명에 대한 기초적 명령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예언서에 나타난 성전 예배에 대한 예언적 비평을 신약의 예배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았다.

다음과 같이 본 논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I장의 서론에 이어서 II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개혁하고자 했던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예배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칼빈이 사용한 예배에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고, 칼빈이 사용한 예배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칼빈이 논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

11)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 문화사, 1993), 70.

12) Hughes Oliphant Old, "John Calvin and The Prophetic Criticism of Worship", *John Calvin & The Church*, edited by Timothy Georg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230-231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임을 밝히고자 한다. 신(神) 지식의 원천과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배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드러지는 예배의 그릇된 모습과 성경적 예배의 모습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에 대한 지식이 예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또 인간의 타락은 곧바로 예배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점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인도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즐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성시킨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구원의 목적으로서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칼빈은 성령 구원 사역과 예배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자 한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영적 예배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회개의 삶, 자기 부정의 삶, 기도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기독교 강요」의 IV권과 칼빈의 교회관을 중심으로 교회

와 예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참된 목적으로서의 예배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예배는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교회가 선택된 자들의 예배 공동체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칼빈이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을 하고 있는지 또 칼빈이 성경에서 찾고자 했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칼빈 신학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VI에서는 한국교회가 칼빈이 말하는 참된 예배를 적용하기 위해서 신 지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인식의 전환과 예배 방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II. 칼빈과 예배

### A. 역사적 배경

먼저 칼빈이 예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와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대중적인 예배 의식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1538년에서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프랑스인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개혁된 예배를 접하게 되었다. 그 도시는 번영하는 종교개혁의 중심지로 개혁된 예배는 일찍이 도입되었다. 1524년에 젊은 성직자 디이볼트 슈바르츠(Diebold Schwarz)가 루터의 신념을 반영하는 예배의 개혁과 함께 미사의 독일어 번역을 소개한 후에 부처와 카피토는 설교, 성례, 교리문답, 그리고 집단 생활에서의 상호 교화의 프로그램과 함께 개혁적 예배를 스트라우스부르그 교회에 확립하는데 성공했다.<sup>13)</sup>

그는 제네바에서 회중들의 찬송을 도입하였다. 「시편을 음악에 맞춘 첫 번째 찬송(the first of the metrical salters)」이 예배용으로 1539년에 「찬양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든 시편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sup>14)</sup> 이 책은 19곡의 시편 찬송과 ‘시므온의 노래’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1542년에 두 권의 예배서를 출판하였다. 한 권은 스트라스부르그의 프랑스인 교회에서 사용하던 「기도의 방식(La Maniere de faire prieres)」

13) John T. McNeill,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양낙홍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167.

14)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148.

이다. 성경을 기초하여 설교 전후의 기도 방식을 정하였다. 칼빈은 예배의 모든 순서와 요소들을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제정하였다. 다른 한 권은 제네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한 「기도와 교회 찬송의 형식(La Forme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iques)」이다. 초대 교회의 본을 따라 기도와 성례와 의식들을 제정하였다. 그는 성경과 초대 교회의 예배를 기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재현하고 설교와 찬양, 예배시의 환희와 적극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예배에 있어서 교회의 일치와 전 회중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가 강조한 주안점은 회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보이는 말씀”인 성례에는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회중들의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5)</sup> 칼빈은 시편주석에 시편 찬송은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며 우리가 사람 앞에 고백하기 어려운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sup>16)</sup> 시편 찬송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교회 찬송에 대한 칼빈의 이론은 1542년의 그의 시편집과 그것의 증보판에 잘 나타나 있다. 칼빈은 시편을 부르는 관습을 다시 회복했다. 칼빈은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 능력을 맹목적이고 추잡한데 사용되는 악용으로부터 구해내서 하나님의 예배 시에 사용되는 그 참된 목적으로 부활시키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칼빈은 회중 찬송에 화음을 넣으면 단순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화음을 넣는 것을 싫어했다.

---

15) Ibid., 179.

16) 「시편(I)」, 159.

1543년 칼빈이 목회 하던 제네바 교회에서 드러졌던 평상 주일 오전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노라’는 개회 선언이 있는 후에 목사는 회중을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였다. 회중들은 시편에 곡을 붙인 찬송을 불렀다. 십계명의 제 1계명에서 제 4계명까지를 노래하였는데 각 계명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Kyrie Eleison)’라고 기도한다. 기도 뒤에 제 5계명에서 제 10계명까지를 노래하였다.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취급은 참된 교회는 인간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함을 강조한 것이다. 정해진 기도를 한 후에 설교가 있었고, 그 후에는 좀 긴 기도가 뒤따랐다. 그 자체가 간단한 예배는 아론식의 축도로 끝마쳤다. 이러한 예배순서를 통하여 칼빈이 의도한 바는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여 순수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제네바 교회는 성 삐에르, 성 제르베, 그리고 마들렌, 세 개의 교구를 갖고 있었다. 주일에는 성 삐에르에서 새벽 예배가 있었고, 아홉시에 교회마다 예배가 있었으며 세시에 첫 두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다. 각 교구의 어린 아이들은 정오에 교육을 받기 위해 교회로 인도되었다. 설교 예배는 또한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전에 연속적인 시간에 각 교회에서 드러졌다. 인구 12,000의 도시에서 이처럼 꼭 짜인 예배 스케줄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참된 예배 회복에 대한 열의와 성도들의 높은 관심 때문이다.<sup>17)</sup>

---

17) Ibid., 186.

## B. 칼빈의 예배 개념

칼빈은 제네바 목회를 하면서 예배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예배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가 「기독교 강요」에서 사용한 예배에 관련된 단어로는 Worship(예배, 경배), Honor(예배, 영광), Praise(찬양, 양모), Adoration(예배, 양모), Service(봉사, 섬김), Ceremony(예배, 행사), Rites(예배, 의식) 등이 있다.<sup>18)</sup> 칼빈이 행사나 의식, 봉사 등으로 예배의 외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고, 경배, 영광, 양모, 찬양 등으로 예배의 내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이 두 면 중 한 부분만 강조하지는 않고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칼빈은 특히 외형적 의식에는 항상 경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외적 고백이며 표현이다. 아브라함이 제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사람들 앞에서 외적인 공인이 첨가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영적이지만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외형적인 형식이다라는 것이다.<sup>19)</sup>

칼빈은 외적인 의식과 내적인 경배가 조화를 이룰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sup>20)</sup>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식이 또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외적인 수단인 예배의 의식이 죄인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

1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김중흠·신복윤·이중성·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262-263. 이하에서는 「기독교 강요」로 표기한다.

19) 「구약 1」, 334-337.

20) 「구약 2 창세기(II)」, 176-177.

로 만들지는 못한다. 칼빈은 야곱이 돌단을 쌓은 의식을 진정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은 보조 수단이고 부수물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면적 의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만들지 못하며 경건의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식에는 항상 마음이 담겨져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의 영적 의미는 상실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기록함을 예배 의식에만 국한시키는 큰 실수를 범했다. 하나님께서 의식을 제정하신 목적은 의식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하여 백성들의 경건을 훈련하고 믿음에 더 큰 진보를 거듭하고 하나님께 더 순수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sup>21)</sup>

또한 칼빈은 예배에서 영광과 섬김(양모와 봉사)을 구분하려 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철저히 비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소위 라트리아(latria)와 둘리아(dulia)의 구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천사와 사자(死者)에게 드려도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고안된 것이다. 그들의 구별은 마침내 하나님께만 예배(cultus)드리고 다른 것에는 봉사(servitium)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희랍어의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는 라틴어의 “쿨투스(cultus)”와 같은 것을 뜻하고, “두레이아(δουλεία)”는 “세르비투스(servitus)”를 의미한다. 두레이아는 봉사를 의미하고 라트레이아는 예배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봉사가 예배보다 더 범위가 크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존경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려울 때가

---

21) 「구약 12 이사야」, 61-64.

흔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자에게는 보다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다 적은 것을 돌린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sup>22)</sup>

칼빈은 예배를 말할 때 한 부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존경과 영광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일부분은 인간이 만든 형상에게 돌려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예배 부패의 원인이었다. 그들은 형상물에게 표시하는 존경을 우상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자신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로써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돌리아(dulia) 곧 영광이라는 것이 조상이나 화상에게 돌려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만 우상의 봉사자일 뿐 예배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sup>23)</sup>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참된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배를 받을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의 영광도 받을 수 없다.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그에 대한 성경적 예를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리어 절한 것을 적극적으로 금하였던 사건에서 찾는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을 무차별하게 피조물에게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로 우리는 자주 인간이 예배를 받는 일에 대해서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말하자면 세속적인 경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종교는 이와는 다른 의도를 지니고 있다. 종교는 일단 예배 행위와 결합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광을 티끌만큼도 손

---

22) 「기독교 강요」, I. xii. 2.

23) 「기독교 강요」, I. xi. 11.

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에게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sup>24)</sup>

그러므로 칼빈은 예배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 전체의 목적은 새로운 규정으로 양심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과 우리 인간이 조작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이지 로마교회처럼 새로운 짐을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렵지 않은 소수의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신다는 것이다.<sup>25)</sup> 교회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의식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하고 모든 경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고유의 신성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귀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박탈당하고 그에 대한 경의는 더럽혀진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조차 예배로 본다. 삶으로서의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으로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강요 3권 6장이하에 기록한 삶과 참된 신앙으로 예배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경건의 삶은 필수요소이기에 삶의 예배에 철저히 맞춰져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가 단순히 의식에 참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예배는 예배자의

---

24) 「기독교 강요」, I. xii. 3.

25) 「기독교 강요」, IV. x. 14.

지성적 능력을 포함하는 고도의 지적인 헌신이다. 칼빈은 예배 속에 말씀과 성례를 함께 붙잡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예배란 지성, 감정, 의지의 전 인격적 능력이 포함되는 행위였다.<sup>26)</sup>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동으로 해석하였다.<sup>27)</sup> 칼빈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들이기에 성도들의 생활은 곧, 예배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하나님 앞에 (Coram Deo) 경건한 삶을 강조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의식만 강조하는 미사에 대하여 철저히 반대하였다.

### C.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배 위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그의 신학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권은 하나님 아버지, 제 2권은 성자, 제 3권은 성령, 제 4권은 교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는 내용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sup>28)</sup>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제 1권은 창조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다루고 2권에서 4권까지는 구속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sup>29)</sup> 기독교 강요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26) 김영한, 133.

27) 김재성, 177.

28) 「기독교 강요」, Vol. I. ii. 1.

29)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7), 61.

곧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이다.<sup>30)</sup>

한철하 박사는 「기독교 강요」가 하나님 중심의 책이요 어느 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다. 1권과 2권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 논한 것이라면 3권은 구원론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4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외적 수단 또는 외적 보조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철하 박사에 의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전체를 신앙이라는 한 단어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있다고 한다. 즉 칼빈의 그리스도교 종교에 대한 가르침의 총괄인 「기독교 강요」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책이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다.<sup>31)</sup> 「기독교 강요」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인 창조와 구속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인간 구속 사역의 목적은 모든 만물이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인간이 구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예배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예배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은 각 권에 각 주제에 따라 흩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권과 4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1권에서는 참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창조주에 관한 지식의 기초요소이며, 냉랭한 공상을 배제한다고 한다. 1권 3장은 예배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4장에서는 예배에서 인간의 조각이 배

---

30) 이양호, 51.

31) 한철하, 11-22.

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5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경배하지 않은 인간은 미신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성경이 참된 예배의 지침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10장은 어느 누구도 예배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음을, 11장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벗어난 형상, 조각, 회화는 예배 부패의 원인 됨을, 12장은 우상 숭배의 문제와 오직 하나님만 완전한 예배를 받으심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특히 삼위일체 창조 섭리 교리의 중요한 서론으로 예배를 다루고 있다. 13장부터 18장까지는 삼위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그분의 사역인 창조와 섭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II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예배의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을 통하여 이루신 영적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6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 7장에서는 구약 제사 의식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종결지어졌으나 그 존엄성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8장에서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율법 특히 십계명과 복음을 통하여 오직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약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III권에서 칼빈은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나아만과 고넬료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로 들면서 예배의 필수 요소로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돌릴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합당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성령의 기록케 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6장에서 9장까지는 예배가 성도의 온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이 예배와 분리 될 수 없으며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삶은 예배를 통하여 더 풍성해진다. 20장에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기도가 예배의 주요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IV권은 예배에 있어서 바른 의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1장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예배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공중 예배는 성도를 교육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2장에는 참된 예배에서 떠난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예배의식은 여로보암과 같은 패역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10장에서는 교회법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 의식을 제정한 카톨릭 교회법은 전체적이며 경박하며 성경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에서 쓰는 유전과 인간의 조작을 성경과 그리스도 자신께서 배척하신다는 점과 참된 예배에서의 예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 강요」 전체에 걸쳐 예배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 강요」는 초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경건의 개요와 구원의 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경건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예배는 경건 생활의 꽃이다.<sup>32)</sup> 칼빈의 경건과 구원의 이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배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사교와 신학적 노력의 궁극적인 관심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배는 그의 신학의 한 주제라기 보다는 그의 신학 전체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2) 이수영, “경건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 칼빈학회 엮음,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8), 274.

### III. 신(神) 지식의 목적으로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 목적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합당한 예배를 위함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I권과 II권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을 논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었다. 창조와 구속은 서로 대립될 수 없다.<sup>33)</sup>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지식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지식은 항상 우리의 행위로 연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34)</sup> 우리가 신지식에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고 찬양하게 되는데 이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체험에 대한 감정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찌하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반응이다.<sup>35)</sup>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신지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sup>36)</sup> 그러므로 신지식을 바로 가질 때만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 A. 신(神) 지식의 원천과 예배

칼빈은 신지식이 단순하거나 순전히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우리를 향

---

33) John H. Leith, 25.

34)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 입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54.

35) 한상화, 56.

36) 「기독교 강요」, I. v. 10.

한 하나님의 부정적 은총을 확신하는데서 오는 신앙의 지식이라고 한다.<sup>37)</sup>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상으로 만족하는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산 체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이다.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진실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지고 믿음과 합하여진 지식이다. 이 지식은 냉랭한 사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수반한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노예로서의 두려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아무 뜻 없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의식이 허식으로 흐르는 곳마다 마음의 진실성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sup>38)</sup>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서 만들어 낸 허구와 망상에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 미신에 사로잡힌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

---

37) 「기독교 강요」, III. ii. 4.

38) 「기독교 강요」, I. ii. 2.

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만들어 낸 허구와 망상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9)</sup>

그래서 칼빈은 신(神) 지식의 문제가 인간에게 본질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신지식의 문제는 사람들이 마땅히 일생을 바쳐 탐구해야 할 주제”<sup>40)</sup>라고 말하였다. 그는 인간이 수백 번 다시 산다 하더라도 몰두해야 할 주제는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가 주도한 제네바 교회 신앙문답 제 1문에서도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했으며, 제 3문에서는 인간의 최고 행복(*summum animae bonum*)도 신(神) 지식이 라고 했다.<sup>41)</sup>

목사: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인식이란 어떠한 것인가?

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을 인식할 때 그러합니다.

목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이: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우리의 모든 곤경 중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

39) 「기독교 강요」, I. iv. 1.

40) 「구약 16 예레미야(1)」, 524-525.

41) John Calvin, 「갈뱅의 요리문답, 즈네브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교육 요강 및 신앙고백」,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101-102.

며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선을 구하며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써 인정하는 것입니다.

## 1. 계 시

### a) 일반계시와 우상숭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가 바로 계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은 인간의 정신 속에 심어져 있어서 사악한 사람으로 핑계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비록 하나님의 지식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은 확실하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만족할만한 계시를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식”,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결코 그 뿌리가 근절될 수 없다고 말한다.<sup>42)</sup>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창조를 통하여 그의 숨씨를 보여 주심으로써 자신을 계시 하였고 매일

---

42) 「기독교 강요」, I. iii. 3.

매일 드러내고 계신다. 그 결과 인간이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자연 전체를 다스리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시며 또한 자기에게 예배 드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감추어 질 수가 없다고 칼빈은 주장한다.<sup>43)</sup>

칼빈은 실제적인 불 경건은 불가능하다고 한다.<sup>44)</sup> 왜냐하면 신(神)의식이 결코 멸절될 수가 없고 오히려 무성해지고 현재에도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의 모든 사고를 초월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 하나 창조물에 그의 틀림없는 영광의 표적을 새겼으며,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무식해서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종 오류에 심각하게 기울어지며 또한 맹렬하게 계속 신기하고 인위적으로 예배를 날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고안에 낸 의식과 형상들이 모두 하나님 예배를 부패시킨다. 그것은 악한 종교를 낳았다. 사람은 무지와 흑암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이나 허황된 것을 독자적으로 조작하기에 이르렀다.<sup>45)</sup>

창조 이래로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은 맹목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육안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믿어지는 형상들을 만

---

43) 「기독교 강요」, I. v. 6.

44) 「기독교 강요」, I. v. 1.

45) 「기독교 강요」, I. v. 12.

들어 세웠다. 칼빈은 우상을 세우는 자는 일반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한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출20:4)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려는 어떤 방자한 행동을 억제시키셨다. 조각과 회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과적으로 형상의 사용과 예배 부패의 기원이 된 것이다. 어떠한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불경건의 허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파괴된다.

회람 사람들은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는 현명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들을 마치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거나 한 것처럼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미신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그들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일체의 형상, 화상 그리고 그 밖의 상징물들을 예외 없이 거절하셨다.<sup>46)</sup>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신지식을 계시해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억누르고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계시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인간을 징죄한다.<sup>47)</sup>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호기심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형상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형상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며 온전한 영광과 예배를 하나님만 받으신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

46) 「기독교 강요」, I. xi. 1.

47) 한상화, 76.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가 되며 따라서 우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정한 경건이 부패하며 타락한다. 인간들의 추측이 개입하면 그들이 새로운 형태의 예배의식을 고안해 낼 경우 그들은 참 하나님에게서 떠나 한낱 우상을 섬길 뿐이다.

#### b) 특별계시와 예배

일반 계시를 통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일반계시를 통해 완전한 신지식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일반 계시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 드렸을 것이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해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충분히 나타났기 때문이다.<sup>48)</sup>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일반 계시가 우리 속에 완전한 신지식을 파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신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진리를 인간에게 전달하여 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를 의존하여야 한다.<sup>49)</sup>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없는 인간은 구속의 은총 가운데 주어진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바른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은 특별계시를 사용하시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야기된 굳어진 마음에 완전한 신지식

48) 「기독교 강요」 I. v. 11.

49) Benjamin B. Warfield, “칼빈의 신지식 교리에 대하여”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윌리엄 팩 암스트롱 편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9), 156.

을 전달해 주셨다.<sup>50)</sup> 특별게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단순한 두려움에만 사로 잡혀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도 않는다.<sup>51)</sup>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획득한 특별게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낳게 한다.<sup>52)</sup>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신뢰와 사랑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칼빈은 참 종교란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진 예배의 모습에서 찾고 있다.<sup>53)</sup> 하나님의 특별게시에 일치하게 예배가 정해져야 하며 이것에서 벗어난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다.<sup>54)</sup>

하나님 예배에 대한 참된 신앙의 법칙은 인간적인 것은 조금도 섞이지 않으며 자신의 것이나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아무도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sup>55)</sup> 진실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신기한 것에 쉽사리 걸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온 것을 여러 가지 종류의 누룩으로 더럽히기 때문이다.<sup>56)</sup>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한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로 참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신다.

---

50) Ibid., 158.

51) 「기독교 강요」 I. ii. 2.

52) Benjamin B. Warfield, 149.

53) 「기독교 강요」, I. vi. 3.

54) Benjamin B. Warfield, 150.

55) 「구약 26 호세아」, 497-501.

56) 「구약 3」, 444.

## 2. 성 경

인간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전달이라고 볼 때 그것은 곧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성경은 그것의 기록이며 그것에 접근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성경과 특별 계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서로 구별이 된다.<sup>57)</sup>

칼빈은 신앙과 행위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유일하며 가장 안전한 안내자로 확신하였다.<sup>58)</sup>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그 자신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준다”고 주장한다.<sup>59)</sup>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가? 이에 대하여 칼빈은 성령의 비밀스런 내적 증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60)</sup> 비록 성경이 그것 자체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확증되는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믿는 예배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돌려져야 하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시인하며 어떠한 예배를

---

57) 한상화, 81.

58) 신복윤, 71-72.

59) 「기독교 강요」, I. iv. 1.

60) 「기독교 강요」, I. vii. 4.

거절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선과 의를 규정하고 이것을 통하여 인간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실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든 피조물에 새겨져 빛나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지식은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생활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시에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배우게 된다.<sup>61)</sup>

순수하며 참된 종교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인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적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것이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고안한 왜곡되고 위조된 예배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예배를 고안해 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sup>62)</sup> 하나님 예배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인간의 모든 지혜, 분별, 이성 등 인간의 모든 감각이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인간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택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끝내 하나님 예배를 더럽힐 수밖에 없다.<sup>63)</sup>

---

61) 「기독교 강요」, I. x. 2.

62) 「구약 26」, 349-351.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한결같이 어리석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불합리한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확실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고,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말을 여기에 순응시켜야 한다.<sup>64)</sup>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예배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 율범이란 굴레가 인간에게 씌워져 악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맹인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예배를 피하도록 하셨다.<sup>65)</sup>

칼빈은 여기서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 즉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에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한다.<sup>66)</sup>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와 모든 허구적이고 타락한 예배 의식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합법성 여부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예배에 관하여 인간은 오직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뿐이라고 한다.<sup>67)</sup>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참되고 합법적이려면 그가 규정한 것을 따를 뿐 그가 명령하고 정해 놓으신 것 이외에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간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sup>68)</sup>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 가르

63) 「신약 6 사도행전(II)」, 158-161.

64) 「기독교 강요」, I. xiii. 3.

65) 「기독교 강요」, I. xii. 1.

66) Samuel Dunn,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김득룡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6-17.

67) 「구약 26 호세아」, 414-417.

쳐 주고 있다. 칼빈은 예배의 제반 정신과 내용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서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된 예배는 말씀에 규정된 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나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금하지 않은 것을 무엇이든지 교회의 결정에 따라 더하거나 뺄 수 있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고, 또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독교 예배에 더하거나 빼냈다. 즉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적 고안물을 기독교 예배에 첨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 명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예배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69)</sup>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한 교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동일한 예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신다. 구약 성경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깨우는 복음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70)</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망상이나 의향에 따라서 예배하거나 또는 어떤 가견적인 물질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신12:22, 마15:9, 행17:25, 마4:9-10, 신45:15-20, 출20:4-6, 골2:33)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단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시된 자기의 뜻에만 따라 예배하도록 정하셨다.<sup>71)</sup>

---

68) Ibid., 497-501.

69) 오덕교, “교회사에 나타난 예배”, 「성경과 신학」 6권, 113-130.

70) 「기독교 강요」, II. xi. 13-14.

71) G. I. Williams,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역, (서울:

칼빈은 성경을 통하여 얻어지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예배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성경에 제정된 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규례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며 하나님을 그의 합당한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다.

## B.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

### 1. 삼위 하나님

인간은 성경을 통하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칼빈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정죄 하였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건전한 예배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잘 시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로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꿔 놓고 구실을 내세워 옛 잘못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다.<sup>72)</sup> 그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단일 명칭을 순서적으로 볼 때 성부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세우기 위해 순서적으로 그런 것이

---

개혁주의 신학협회, 1993), cpt. xx. 1.

72) 「신약 6 사도행전(II)」, 29-32.

며 하나님이라는 명칭하에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지칭됨을 강조하고 있다.<sup>73)</sup>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혐오하고 피하라고 명하신다. 그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다른 우상의 무리들과 섞어 놓는다면 여전히 그의 위엄은 빼앗겨진다.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선한 천사,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리고 마리아와 옛 성인들을 예배한다.<sup>74)</sup>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릇된 지식으로 섬기기보다는 차라리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겔20:39).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섞인 예배를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경배 받지 않느니 보다는 차라리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하신다고 칼빈은 말한다.<sup>75)</sup> 칼빈 사상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미친다. 하나님의 의지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근거이며, 그의 영광은 만물의 목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 행복은 인간의 주요한 의무이며 위안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왕적 주권, 그의 영광스러운 위엄, 그의 완전한 통치적 의지는 모두가 찬양과 경배해야 할 최고의 대상이며 모든 관심 중의 최고의 관심사이다.<sup>76)</sup>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

73) 한상화, 67.

74) Alvin Roy Sneller, 「칼빈주의 신학과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1988), 362.

75) 「구약 3」, 414.

76) 신복윤, 17.

없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즉각적으로 예배의 반응, 즉 하나님 자신에 경의, 존경, 찬양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다.<sup>77)</sup>

칼빈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령한 본질은 우리 자신들의 육감으로는 결코 헤아려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세속적이거나 육감적인 어떤 것도 우리는 억측하기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sup>78)</sup> 특히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오직 성경이 증거하며 보증하는 것이지만 이단자들이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사악하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고 분리되지 아니하며 자기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나 파생적으로가 아니라 통전적으로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은 세 위격으로 분할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활동의 시작이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와 모사이시고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분이시나 성령은 그 활동을 가능케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sup>79)</sup>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란 말은 세 위격 또는 실재적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단일하고도 단순한 본질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삼위일체 안에 내포된 세 위격 전체를 암시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명칭은 유일하시며 단일하신 본질로 이해된다는 것이며 이 본질 안

---

77) 마8:1-2, 9:18, 14:33, 15:25, 28:9, 16-17, 요9:31.

78) 「기독교 강요」, I. xiii. 2.

79) 「기독교 강요」, I. xiii. 20.

에는 세 인격 또는 세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특수화(特殊化)함 없이 언급될 때 이 명칭은 성부를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 또한 지칭한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연합될 때 양자는 상호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위(位)들의 사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다. 칼빈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나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당연한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도 묻고 싶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릎이 마땅히 자기에게 꿇기를 정당하게 요구하셨다고 하면(빌2:10), 그가 바로 자기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하신 그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출20:3). 만일 저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사44:6)고 한 이사야의 말을 다만 성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나는 이 증거로써 저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이다.<sup>80)</sup>

그래서 윌리엄 니콜스(William Nicholls)는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교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 인간을 자기에게로 화해시킨다는 것이다.<sup>81)</sup>

칼빈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표현한다. 한 실례로 신앙에 대한 칼빈의 정의를 보면 이 짧은 정의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언급되어 있다.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80) 「기독교 강요」, I. xiii. 24.

81) William Nicholls, *Jacob's Ladder: The Meaning of Worship*, (Richmond: John Knox Press, 1958), 26.

자애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인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마음에 인(印)쳐진 것이다.”<sup>82)</sup> 이러한 삼위의 동일한 본질, 상호 동등의 원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삼위의 동시적 참여를 의미한다. 삼위일체가 하나의 전체로 창조주인 동시에 구속주이자 성화자이다.<sup>83)</sup>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신다. 이 완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이신 참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잡된 것들이나 부패한 것과 대립된다.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영적인 순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보거나 허영심에 들떠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정결한 예배 가운데 항상 거하여야 한다.

칼빈은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모든 우상을 사라지게 한다고 한다.<sup>84)</sup>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든 헛된 우상들과 분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 사람들이 만들어 낸 온갖 것에게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께 명하신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sup>85)</sup> 모든 허구(虛構)에게 작별을 고하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다.

82) 「기독교 강요」, III .ii. 7.

83) 한상화, 68.

84) 「신약 6 사도행전(II)」, 154-157.

85) 「구약 3」, 445.

## 2.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 사역이 세상 창조와 섭리 속에서 나타나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인자하심과 지혜와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이다.<sup>86)</sup>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 또는 그의 속성, 그리고 사역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87)</sup>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이 그 사역의 위대성에 놀라서 그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한다.<sup>88)</sup>

### a. 창조

칼빈은 창조의 역사를 분명히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창조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주의 창조주요, 창시자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교회가 예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

86) 「신약 10 히브리서」, 245-247.

87) 「신약 7 로마서」, 60.

88) Samuel Dunn, 25.

이사야가 거짓 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할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기초와 하늘의 운행을 보고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서술, 곧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좀더 상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창조의 역사가 명백해지며 교회의 신앙이 이것에 근거하여 모세가 우주의 형상자요 창시자로 표현한 분 이외의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sup>89)</sup>

육일동안의 창조사역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父性愛)를 깊이 감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우주 가운데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만들어 준비해 놓으신 후에야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sup>90)</sup>

칼빈은 창조사역을 통하여 신앙인은 우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에 나타난 제작자의 위대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sup>91)</sup>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만사를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에서 느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부에 자리한다. 그리고 예배는 자신을 바

---

89) 「기독교 강요」, I. xiv. 1.

90) 「기독교 강요」, I. xiv. 20.

91) 「기독교 강요」, I. xiv. 22

로 아는 자의 핵심 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예배는 인간이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행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sup>92)</sup>

칼빈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지 말 것과 특히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sup>93)</sup> 삼위 하나님에 창조 사역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없는 미신적인 사람들은 천사 숭배에서부터 시작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골 2:18).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숭양하거나 다른 은밀한 것에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어리석게도 신으로 상상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계명을 거슬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말할 수 없이 더럽히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려야 할 신성의 일부를 그것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계율을 불경하게 범하는 일이 되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sup>94)</sup>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성실한 보호아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므로 오직 하나님만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피조물의 예배를 받아야 한다. 또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도 피조물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

92) 김재성, 180-181.

93) Ibid.

94) 「구약 3 출애굽기(I)」, 411-413.

## b. 섭 리

칼빈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우연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sup>95)</sup> 사실 인간은 변영이건 재난이건 모든 사건을 다만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할 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받고도 예배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섭리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경외하게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예배하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와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갖게 해준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참뜻을 찾으려고 애쓰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주의 주관자로서 그가 만든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공급하시고 보살피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주관적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이요 우주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바르고 유익

---

95) 「기독교 강요」, I. xvi. 2.

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sup>96)</sup>

신앙인은 우주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임을 발견한 다음에는 곧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한 통치자요 보존하는 자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악함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사악한 욕정에 충동을 받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 바 되고 또한 그의 궁극적인 뜻과 계획에 의해 되어진 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고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sup>97)</sup>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면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인내하게 되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한다. 천지를 소유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된다.

---

96) 「기독교 강요」, I. xvii. 2.

97) 한상화, 108-109.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은 당연히 심연이라고 불리며 이는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건하게 경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신 29:29).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명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시시느가를 보게 된다.<sup>98)</sup>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계획과 의지와 노력과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부성애적 섭리만이 신자들의 복지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형통하게 될 때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덕택으로 돌리며 예배 할 수 있다.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만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심하지 않게 된다. 만일 역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된다.

## C.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

### 1.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타락하였다. 타락한 인간에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었다.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

98) 「기독교 강요」, I. xvii. 2.

지식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 목적도 참된 예배를 위함이다.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체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을 자기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자로 나타나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모든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sup>99)</sup>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주는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은 무의미하다.<sup>100)</sup>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회복하는 것이다.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인간이 범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충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외심을 버리게 되고 말았다고 한다.<sup>101)</sup> 즉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상실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은 사라지게 된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의를 추구하거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부성

---

99) 한철하, 12.

100) 「기독교 강요」, II. vi. 1.

101) 「기독교 강요」, II. i. 4.

적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규칙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모두 상실한 것이다. 인간의 자연적 은사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그의 초자연적 은사 곧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복을 소유하기에 충분했을 믿음과 의라는 초자연적인 은사는 철회되었다. 인간성의 전망에 있어서 칼빈보다 더 어두운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sup>102)</sup>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연결되었다고 한다.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은 첫째로 창조시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한 호의를 계속하시는가를 생각하는데 있다. 둘째로는 아담의 타락이후에 불행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며 또한 귀한 하늘의 성품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 지식에 힘입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내세에 대한 생명에 대하여 명상할 용기를 얻게 된다.<sup>103)</sup>

칼빈의 인간에 대한 견해는 “인간의 어떤 부분도 죄로부터 면제되어 있지 않고 인간에게서 기인하는 모든 것은 죄로 귀속된다”는 말로 요약된다. 인간성은 비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다. 이러한 도착과 어리석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 하심으로 선택된 수의 인간을 그들의 인간성의 한계들로부터 해방시키기로 결정하셨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타락하

---

102) 제임스 F. 화이트, 「개신교 예배(Protestant Worship)」,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100-110.

103) 「기독교 강요」, II. i. 3.

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 본래의 상태가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알 때 인간은 자신을 증오하며 혐오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열심이 생겨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상실되면 인간은 짐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이 여러 면에서 훨씬 더 비참하게 된다. 인간은 많은 형태의 죄악에 붙잡혀 끊임없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인간은 불멸을 동경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만이 사람을 짐승으로부터 구별하여 더욱 고상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는 것이다.<sup>104)</sup>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의 의견에 맡기는 것보다 더욱 불합리한 일도 없다고 한다.<sup>105)</sup>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재능에 의하여 고안해낸 모든 형태의 예배는 거짓되며 가짜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명하시므로 인간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제정하신 규칙을 지킬 것과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것을 금하신다. 이러한 이유로 타락한 인간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형식의 예배는 쓸모 없게 된다. 타락한 인간들이 고안한 예배 형식은 아무 것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으며 다만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이 된다.<sup>106)</sup> 인간의 천성

104) 「기독교 강요」, I. iii. 3.

105) 「신약 6 사도행전(II)」, 189-190.

106) 「구약 26 호세아」, 219-220.

적 타락이 항상 신앙심을 멸시하고 방종한 마음으로 향하고 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나면 즉시 그 사람들의 예배는 부패하게 된다.

칼빈은 인간이 부패함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특히 예배를 부패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예배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만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망하고 사소한 것들을 버리도록 아무리 말해도 항상 다시 그리로 되돌아간다. 물론 그들은 성실한 의도가 동반하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에 관해서 어떤 관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언하지만 거짓된 방법을 고안해서 곧 이 관념을 부패시킨다. 경배에 관해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sup>107)</sup>

사람의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의 지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다. 사람의 본성에는 오직 육박에 없다. 인간은 자신의 빈곤을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신의 빈곤과 죄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한다.<sup>108)</sup> 이것이 인간이 예배에서 가질 참된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인간이 최고의 영예의 최정상에 올라 있을 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박이 사람에게 돌린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

107) 「기독교 강요」, II. ii. 20.

108) 「구약 3」, 415.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으며 받은 축복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적어도 자기의 빈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sup>109)</sup>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로 말미암아 의지가 선을 추구하게 되며 선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고 사람의 어떤 공로에도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성령을 떠나게 하시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굽어지게 하신다. 선택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성을 깨우치고 마음을 개조하여 의를 사랑하고 함양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교정하고 개혁하며 갱신함으로써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자들을 위하여 유보적 은총으로부터 유기자들을 제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 얻은 사실을 묵상 할 때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 2. 예배 범으로서의 율법

---

109) 「기독교 강요」, II. ii. 1.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참된 예배를 위함이다. 칼빈은 율법을 예배 법으로 이해했다. 그는 도덕률과 의식률을 함께 연결된 것으로 보며 상호 관련된 것으로 본다.<sup>110)</sup> 칼빈은 1545년 「스트라스부르그 예배 의식서」에 십계명을 포함하였다. 칼빈은 율법의 제 3의 사용-신자들의 의로 인도하는 율법의 사용-을 인정하였다. 예전(liturgy)에 율법을 포함한 것은 그의 예전의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과 순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1)</sup> 율법은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며 예배 의식이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옛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희생제사와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sup>112)</sup>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그렇다고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율법적인 의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옛 의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보다 높은 것, 즉 하늘의 진리를 지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다.<sup>113)</sup> 율법의 제사에 의해서는 예배자들이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일정한 예배의 규칙이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서는 안될 길도 가르쳐 주신다.<sup>114)</sup> 구약의 예배 의식은 영혼에까지 도달하지 않는 단순한 지상

---

110) Wilhelm Niesel, 88.

111) 김영한, 136.

112) Wilhelm Niesel, 89.

113) 「신약 10 히브리서」, 176-178.

114) 「구약 26 호세아」, 176-178.

적 상징들이다. 이러한 상징들은 완전한 기록함의 진정한 증거이기는 하였지만 그것들 자체로는 아무런 기록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인간에게 어떠한 기록함을 주지 못한다.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모세에게 산에서 제시된 영적 모형에 따라서 정리되었다. 그러므로 성막, 제단, 돌판, 언약궤란 하늘의 모형을 보여 주는 그림자요 형상에 불과하다. 칼빈은 구약 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의 예배 차이점은 단지 외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다고 한다. 즉, 구약 시대 성도들은 많은 비유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이 희미하게 나타났으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나타났다.<sup>115)</sup>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중적 지식과 관련하여 십계명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다. 경건 없는 의를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도 공평과 사랑을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sup>116)</sup> 이것은 구약의 예배 원리이며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표준이다. 이것은 훗날 청교도들의 예배 원리가 되었다.<sup>117)</sup>

하나님은 십계명의 전반부에서는 예배를 명령할 합법적 권세가 자신에

---

115) John Calvin,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동현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4), 23.

116) 「기독교 강요」, II. viii. 11.

117) 혼톤 데이비스, 「청교도 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5), 10.

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고 또 바르게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다.

십계명의 첫째 돌판의 내용은<sup>118)</sup> 하나님의 숭엄성에 대한 예배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것을 명하시고 모든 미신을 섬기지 않기를 요구하시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그것들에게 최고의 권세를 부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일이다. 모든 허구에서 작별을 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로 간주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 의의 전체를 거기 포함시키시며, 처음 부분에는 특히 하나님의 숭엄성에 대한 경배에 관계된 종교적 의무들을 배정하셨다. 확실히 의의 첫째 토대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다. 이것은 무너지면 의의 모든 다른 부분도 넘어진 건물의 깨어진 조각들같이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의 시초와 토대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경건과 올바른 종교적 의무들을 가르치시며 거기 따라서 하나님의 숭엄성을 경배하라고 하신다.<sup>119)</sup>

칼빈은 제 1계명에 대하여 해석하면서 예배의 처음이 잘못된 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 평가를 올바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합당한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로부터 시작되지

---

118) Meredith G. Klein, 「성경의 권위의 구조」, 김의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108-110. 칼빈은 두 돌판 중 첫째 돌판에 1-4계명이 둘째 돌판에 5-10계명이 기록된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 고고학의 발달로 오늘날 구약 학회에서는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종주권 조약이나 계약으로 본다. 그러므로 두 돌판은 각 돌판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 두 돌판은 언약의 이중적 사본인 것이다. 이 조약 본문의 이중 사본을 마련하는 것이 종주권 계약 체결의 정상적 과정이었다는 사실이 이 해석의 정확성을 결정적으로 입증해준다.

119) 「기독교 강요」, II., viii. 11.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행위의 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어떠한 시대적 요구가 있더라도 할지라도, 또 어떠한 청중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집행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예배를 이끌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청중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은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시작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와 나라를 향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만약 예배가 교회성장과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떻게 해야 그에게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규율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며 하나님을 그의 합당한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다.<sup>120)</sup>

제 2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 예배가 그의 성품과 일치하려면 영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비록 모세는 여기서 우상 숭배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율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대유법적으로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어 고안해 낸 모든 허망한 예배를 정죄하고 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배를 타락시키는 육적인 혼잡이 일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이성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변형시켜 놓고 말았

---

120) 「구약 3 출애굽기(III)」, 411-413.

다.<sup>121)</sup>

둘째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유치한 생각으로 조작하기 쉬운 너절하고 육적인 행사들을 일체 버리라고 하신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따르게 하신다.<sup>122)</sup>

예배의 많은 순서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치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고안해 놓은 연극, 성경에 있지 않은 많은 극적인 상황들, 인간에게 더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한 인간의 행위는 참으로 아론과 그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행위와 같다.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무지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새긴 형상이나 어떠한 모습도 세우는 것을 금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예배가 이러한 환상이나 허망한 것에게 돌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을 고안해 내는 순간 거짓 예배에 빠지고 마는 법이다. 칼빈은 제 2계명에 충실하고자 교회에서 모든 미술품들을 제거하였다.<sup>123)</sup>

칼빈은 제 3계명의 해석에서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마땅한 경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것이 남용되는 것을, 특별히 서약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종교적 예배의 일

---

121) 「구약 4」, 75-76.

122) 「기독교 강요」, II. viii. 17.

123) 김영재, 96.

부이다.<sup>124)</sup>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의미이다.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죄악 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바라는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인간에게 단순한 현세적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바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예배를 함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믿음으로만 드릴 수가 있는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이 중요한 점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 아무리 무더기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칼빈은 제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앙인 사이에 경건이 소멸하거나 쇠퇴하는 것을 막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외면적 수단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25)</sup> 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이거나 각자의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126)</sup> 안식일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창조 행위의 양식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지은 자에

124) 「기독교 강요」, III. xx. 13.

125) 「기독교 강요」, II. viii. 24.

126)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신학 대학원 출판부, 1997), 209-227.

게 그의 언약적 성별을 서약하는 것이다.<sup>127)</sup> 제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인의 삶을 통한 예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수한 예배에 대한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배는 헛되고 부적합하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 각자의 상상과 잘못된 헌신의 길로 미끄러져 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따위 오만을 견제하는 뜻에서 먼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를 제대로 경배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주신다.<sup>128)</sup> 갖가지 의식은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옛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형식과 실행에 연관된 깨끗함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잠정적인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 즉 신령한 예배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존속하기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에 의하여 의로움 혹은 깨끗함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의식 그 자체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부수적인 것은 모두 다 없어졌다.<sup>129)</sup>

그러므로 율법은 옛 언약의 백성들을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키워주고 자기 백성을 그리스

---

127) Meredith G. Klein, 110.

128) 「구약 4」, 195-198.

129) 「신약 6 사도행전(II)」, 60-63.

도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은 어린아이와 같은 구약 교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율법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 철저히 배우고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며 따르고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아는 데 새로운 진보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의식법과 형벌적 기능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여러 제사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전 휘장에 희미하게 나타난 것처럼 완전한 계시의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가 휘장을 통해서 감싸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확대하도록 하려는 뜻이다. 율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릇된 예배에 대한 경고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율법 밑에서 위로를 받으며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 있기 때문이다.<sup>130)</sup>

### 3.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과 부활을 통하여 율법의 예배 의식을 완성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도 참된 예배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생하고 명백한 형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으며, 모든 의식의

---

130) Wilhelm Niesel, 91.

완전한 실체를 나타내셨다.<sup>131)</sup> 구약의 피뿌리는 의식은 어떤 경우에라도 신앙을 가지고 피의 중재를 바라보기만 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결함과 어려움으로 가득찬 것이다.<sup>132)</sup> 그리스도는 공적 예배의 완성자이다.<sup>133)</sup>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도 없다.<sup>134)</sup>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케 하신 것이 아니면 아무런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sup>135)</sup> 구약 속에서 많은 예표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였고, 신약시대에는 직접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되었고, 부활을 통하여 칭의와 의가 회복되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다.<sup>136)</sup> 칼빈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값없는 화해에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리고 가식 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sup>137)</sup>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모든 예배가 흠투성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화해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결이 없다면 인간의 예배는 정죄받을 뿐이다.<sup>138)</sup>

---

131) 「구약 4」 출26:31, 142.

132) 「신약 10 히브리서」 히9:18, 200-201.

133) 김소영, 「현대 예배학」,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7), 47.

134) 「신약 10 히브리서」, 히13:15, 319.

135) 「구약 4」 레2:1, 296.

136) 「신약 10 히브리서」, 196.

137) 「구약 1 창세기(I)」, 170-171.

138) 「구약 4」, 166-167.

칼빈은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들이 아니면 진정한 종교적 상징은 어떤 것도 결코 없다고 한다.<sup>139)</sup>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영적 이어야 할 예배가 형상화되어 버린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자유가 상실된 새로운 멍에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옛 언약마저도 중보자 없이는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경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보자 없는 예배는 마음을 상실한 예배이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온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란 참으로 힘들다.<sup>140)</sup>

칼빈은 모든 구약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실현된 것으로 보아 장엄하고 화려한 예배 예전을 거부하고 성경의 교훈과 배치되는 상징물과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 장식물들 등을 교회에서 제거하였다.

오르간도 성가대도 없고 오직 벽에 걸어 놓은 십계명 외에는 교회 안에 아무런 장식도 없다. 텅 비어 쓸쓸한 예배당이 칼빈에 의하면 신성하다는 것이고 이것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공로로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할 수 있었다.<sup>141)</sup>

예수님은 참으로 신령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외식적인 예배자들로부터 구분하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옛날 예식의 덮개를 벗겨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서 신령한 것만을 유지하는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방 종교를 그릇된 것이

139) 「신약 10 히브리서」, 176-178.

140) Ibid., 51.

141) Evelyn Underhill, *Worship*,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287.

라고 단죄하시는 동시에 참된 영적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를 여러 가지 의식으로 감싸서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의식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하나님을 단순하게 경배한다.<sup>142)</sup>

그리스도는 예언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록 하기 위해 의를 이루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우러러보지 않는 경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순종의 예배 행위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결케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 투성이다.<sup>143)</sup>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면 미신과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각종 선한 것이 풍성하게 장만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원천에서 마음껏 마셔야 한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런 희망 저런 희망으로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지만은 생각의 일부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그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부한 축복을 한 번 참으로 안다면 이런 불신이 잠입하지 못할 것이다.<sup>144)</sup>

---

142) 「기독교 강요」, IV. x. 14.

143) 「구약 4」, 166-167.

144) 「기독교 강요」, II. xvi. 19.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화려한 의식으로 예배를 만족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겠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깊은 예배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은 더욱 더 깊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神) 지식의 목적으로서의 예배를 살펴보았다.

칼빈의 신(神) 지식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칼빈의 신(神) 지식에 대한 교리는 그의 모든 교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칼빈 신학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문제가 취급되었고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여 강력히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sup>145)</sup> 칼빈은 예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을 강조한 점에서 개혁주의 예배는 보다 객관적인 면을 더 가졌다.<sup>146)</sup>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신(神) 지식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본질 또는 속성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죄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47)</sup> 그러므로 창조

---

145)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29-31.

146) 김영재, 96.

147) 「신약 7 로마서」 롬1: 20, 60-61.

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각성시키며 용기를 갖도록 한다.

## IV. 구원의 목적으로서 예배

앞에서 신 지식의 목적이 참된 예배를 위하여 주어졌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신 목적도 참된 예배를 위함임을 살펴보려고 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구원론을 다루고 있다. 3권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독생자에게 다 부여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사함과 회개함을 얻어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고 한편으로는 중생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sup>148)</sup> 구원론의 성격은 이론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전 삶에 관계되는 종교적 회심의 성격을 가진다.<sup>149)</sup> 참된 신앙과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이 전제되어야 한다.<sup>150)</sup>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과 삶의 예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것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참된 예배를 산출하기 때문이다.<sup>151)</sup>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예배이다.

### A. 성령의 사역과 예배

---

148) 한철하, 17.

149) 한상화, 137.

150) 한상화, 138.

151) John. MacArthur, 「참된 예배」,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6). 29-30.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듯 참된 예배를 위한 성령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칼빈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과 사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합당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성화시킴이 없이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열납되거나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sup>152)</sup>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sup>153)</sup>

칼빈은 구약 시대의 족장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단순히 자기 의지대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한다. 족장시대는 기록된 율법을 성령의 지시가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미신적인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을 핑계삼아 육신의 향락에 탐닉하며, 사단은 허망한 예배 양식을 미끼삼아 죄악에 빠지게 한다.<sup>154)</sup> 칼빈은 성령의 사역이 없는 모호함과 어두움처럼 하나님 예배를 어긋나게 하는

---

152) 「구약 2 창세기(II)」, 172.

153) 「신약 7 로마서」, 46-48.

154) 「구약 5」, 322.

것은 없다고 한다.<sup>155)</sup> 그러므로 성령의 지시가 하늘로부터 계속 흘러 넘쳐야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칼빈은 구약 성막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고귀한 향품이 섞인 기름을 성령의 모형으로 본다. 성령의 효력과 은혜가 성막 예배의 그림자 속에 주관하고 있고 이 성령의 효력과 은혜에서 나오는 모든 유익은 동일한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신자들의 용도에 적용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롭게 나오도록 하는 화해를 찾아야 할 곳은 제단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만약 성령에 의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의 죽음의 제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 1.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칼빈 구원론 전체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구원론의 모든 요소에 내포되어 구원론의 다양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며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만든다.<sup>156)</sup>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간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칭의(稱義)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묘사한 4가지 방법, 즉 머

155) 「구약 4」, 134-135.

156) 원종천, “그리스도와 연합론”, 「칼빈신학과 목회」, 한국 칼빈학회 엮음,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9), 81-82.

리되심, 형제관계, 접붙임, 옷입음에 더하여 칼빈은 결혼의 비유를 첨가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깊고 본질적인 교제와 나눔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sup>157)</sup>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곧 예배이다.<sup>158)</sup> 칼빈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신자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적이다.<sup>159)</sup>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으로써 가시화 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성만찬이 매주 시행되기를 바랐다.<sup>160)</sup>

칼빈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역은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sup>161)</sup>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는 띠이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힘에 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혜택들을 함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성적 은총이나 그리스도의 은택을 아무도 맛볼 수가 없다.<sup>162)</sup>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창시자이시며 중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창시자이시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

157)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6), 30.

158) 김득용, 「현대 예배학 신강」,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2), 31.

159)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57-61.

160) 김영한, 138.

161) 「기독교 강요」, III. i. 1.

162) 「기독교 강요」, III. i. 2.

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까닭에 하나님의 진리에 결코 충실할 수가 없다. 또한 그것은 너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대하여 항상 캄캄하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실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sup>163)</sup>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신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임을 보여 주는 것같이 우리도 이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원천이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기에 최상의 완전한 예배를 이루기 위해 성령의 모든 은사로써 우리에게 나타나셨다.<sup>164)</sup>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생명의 연합의 그 기원은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칼빈은 인간의 심령이 개선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표현했다. 성령의 증거란 인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The Subjective action of the Spirit)이다.<sup>165)</sup> 성령의 증거에 의해 인간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인 성경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다.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서 하시는 일

---

163) 「신약 10 히브리서」, 181-184.

164) 「신약 10 히브리서」, 223.

165) Benjamin B. Warfield, 144-45.

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의 말씀 안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 감각”을 인간에게 심어주시는(implant) 것이다. 성령이 마음의 교사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있을 수 없다.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무익하지 않다.<sup>166)</sup>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즉각적으로 연결해 주고 생명력을 불어 넣어준다. 동시에 성령은 상호적 만남의 질서를 바르게 해주고 시간을 초월하는 희망과 영원에 대한 확신을 더해준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노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였다(고전12:8-11). 성령의 감동하심이 모든 참된 기도의 기원이다(롬8:26, 요14장). 그리고 성령은 봉사할 동기를 교회에 주신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전으로 택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우리에게 내주 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는 결코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67)</sup>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마땅히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별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sup>168)</sup>

---

166) 「기독교 강요」, III. i. 3.

167) 「기독교 강요」, I. xiii. 15.

168)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79-80.

칼빈은 성령의 은밀한 활동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복음들을 향유하게 된다고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이고 거듭남이고 성결이다. 땅위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됨은 없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사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 즉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sup>169)</sup>

성령께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자극으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성령의 은혜의 열매이다.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두운 마음과 사악한 심정뿐이다(갈5:19-21).<sup>170)</sup>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우리의 심령은 영적 삶을 살 준비를 갖추게 되고 우리 속에서 영적인 삶이 피어나게 된다. 지글러(F. M. Segler)는 예배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현대의 가장 큰 이단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무시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71)</sup>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영적 예배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 2. 믿 음

---

169) 「기독교 강요」, III. xi. 1.

170) 「기독교 강요」, III. ii. 34.

171) F. M. Segler, 「예배학 원론」, 정진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80.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믿음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고 그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sup>172)</sup>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들일 때 죄사함과 회개함을 얻어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고 한편으로는 중생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회개는 “새로운 삶”이고 죄 용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거져주는 “화해”이다.<sup>173)</sup>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된 믿음이다.<sup>174)</sup> 칼빈은 고넬로나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비용을 들여 어려운 길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나아만의 고백과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건들은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의 거짓 제사와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다.<sup>175)</sup>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져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확증되는 것이다. 실로 믿음은 여기 저기를 두루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강론도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

---

172)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61.

173) 한철하, 17.

174) 「기독교 강요」, III. ii. 32.

175) 「기독교 강요」, III. ii. 2.

님과 연합하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한층 확신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익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유익함을 확신해야 한다.<sup>176)</sup>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합당하게 결코 예배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회의심은 하나님께 대한 큰 경멸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곡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갖 종류의 존귀를 쌓아둔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그를 가장 지독하게 모욕한다.<sup>177)</sup>

칼빈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인쳐 주시기 전까지는 참된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는 성령의 신앙 산출 기능을 성령의 증거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고립된 사역만으로 참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자들에게 독특한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독특한 능력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을 참된 신앙<sup>178)</sup>, 굳건한 신앙<sup>179)</sup>, 경건한 자의 신앙<sup>180)</sup>,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sup>181)</sup>, 참된 경건을 위한 필수적인 확신<sup>182)</sup>, 영원한 삶에 대한 굳건한 확신<sup>183)</sup>이라고 한다.

176) 「신약 10 히브리서」, 250.

177) 「구약 3」, 240.

178) 「기독교 강요」, I. vi. 5.

179) 「기독교 강요」, I. viii. 13.

180) 「기독교 강요」, I. vii. 4.

181) 「기독교 강요」, I. vii. 13.

182) 「기독교 강요」, I. vii.

183) 「기독교 강요」, I. vii. 1.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여서도 우리 자신의 편에서는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리를 놓아 주셨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계시로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주관적인 현실이 되는 것은 성령의 하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된 것들이 성령의 은밀한 사역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리스도안에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 전체와 그것의 모든 부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기도와 깨끗한 양심과 자기 부인을 마음의 내적인 믿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외적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확실한 믿음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sup>184)</sup> 그리스도 안에서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 전체와 그 모든 부분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부분들은 성령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칼빈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요17:3) 교회에

---

184) 「신약 4 요한복음」, 138-147.

대한 존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이든지-가장 무서운 오류까지도- 교회라는 딱지를 붙여서 속여 넘기면 무지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신령한 것으로 받든다. 이런 경솔한 맹신이 파멸 일보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명하며 이것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조건만 붙이면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오류를 진리인 것처럼 암흑을 광명인 것처럼 무지를 바른 지식인 것처럼 착각한다.<sup>185)</sup>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며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 칼빈은 믿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의 말씀에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먼저 확신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86)</sup>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또한 우상 숭배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또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즉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지고 믿음과 합하여진 그 지식이 요구된다.<sup>187)</sup>

---

185) 「기독교 강요」, III. ii. 3.

186) 「기독교 강요」, III. ii. 6.

187) 「구약 3」, 446.

칼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확증되는 것이다.”<sup>188)</sup>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 아무렇게나 믿음을 가지는 자들 스스로가 즐거워하고 있더라도 그 신앙에 지식과 진리가 충분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거룩하고 합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sup>189)</sup>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들의 믿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경건과 믿음의 예배를 모든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sup>190)</sup> 믿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람이다.<sup>191)</sup> 그들의 예배가 외면에서는 참되고 합법적인 예배와 전혀 다른 것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바람과 같이 공허한 전사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

## B.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예배

칼빈 신학 전체는 기독교적 삶에서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진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의 도덕법규나 행동양식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하

188) 「기독교 강요」, III. ii. 7.

189) 「신약 6 사도행전(II)」, 154-157.

190) 「구약 1 창세기(I)」, 197-198.

191) 「구약 26 호세아」, 341.

나눔께서 사람들의 삶에 은혜로우시고 직접적인 역사를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이는 개인적인 응답에 의거하여 기독교적 삶을 설명해 보려는 것이 칼빈의 목적이다.<sup>192)</sup> 기독교적 삶이란 역동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생생하고 인격적이며 상호적인 관계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존귀하게 하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열정을 지녀야 한다.<sup>193)</sup>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배적 삶이다.<sup>194)</sup> 삶의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 인격적 응답을 의미하며 또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sup>195)</sup>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sup>196)</sup> 칼빈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화(Sanctification)를 강조한다.<sup>197)</sup>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칼빈은 기독교적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sup>198)</sup>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로서 모든 인간적인 선보다 심지어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sup>199)</sup> 칼빈은 사들레 추기경(Cardinal

---

192) John H. Leith, 30.

193)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84-85.

194) 정일웅,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론, 1999), 231.

195) Ibid., 281.

196) Hughes Oliphant Old, 238.

197) 김영환, 69.

198) John H. Leith, 「칼빈의 삶의 신학」, 43.

199) Ibid., 22.

Sodolet)에게 보낸 답신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심을 자기 실존의 제 1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에게만 그의 생각을 한정하는 것은 건전한 신학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이다....또한 나는 도리에 어긋나고 부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구원에 해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당신의 주장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sup>200)</sup>

칼빈이 강조한 하나님 주권 사상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사는 삶인 경건으로 늘 예배처럼 드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주적인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지식과 삶을 이분법적인(Dualistic)이 아닌 하나로 본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사상체계와 거대한 힘으로 공격해오면 쓰러지고 타협하나 그리스도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를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신앙의 유산을 지키려고 힘쓴다. 이것이 바로 “원리를 이길 원리(beginsel tegen beginsel)”이다.<sup>201)</sup> 신앙과 생활, 예배와 생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다.<sup>202)</sup> 예배와 생활이 단절되면 성도의 삶과 교회는 무력해진다. 예배에서 고백된 결단이 생활에서 실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생활에서 패배한 자

---

200) John Calvin, “사들렐에 대한 칼빈의 응답”, 「칼빈의 종교 개혁 사상」,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6), 291-292.

201) 정성구, 「칼빈주의 연구」, (서울: 칼빈주의 연구원, 1992), 45-47.

202)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74), 53.

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며 예배의 연장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도우시는 성령의 전적 통치를 받아들이는 결단만이 예배와 생활의 이원화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향한 자기부정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진다. 예배의 지침서인 십계명의 두 돌판중 첫 번째는 신앙의 원칙을 둘째는 우리 인간 사이에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예배 다음에는 반드시 사랑의 여러 임무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sup>203)</sup> 하나님을 예배함이 삶 속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예배는 의식에 참여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sup>204)</sup>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는 자는 모든 부정을 피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sup>205)</sup> 믿음과 덕성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없는 것이 교회 내에 받아 들여져서는 안된다. 예배가 실용적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및 충성과 또한 이웃 사랑 등이 증대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sup>206)</sup> 감사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고난들에 대한 찬양, 그리고 믿음과 회개 등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 속에서 경건한 면을 보유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sup>207)</sup>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고 나타낼

---

203) 「구약 5」, 306.

204) 「구약 1 창세기(I)」, 165-167.

205) 「구약 4」, 138.

206) 김영재, 100-102.

207) 「구약 3」, 18.

수 있는 경배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경외심 속에는 복종의 개념이 들어 있으며 경외하게 될 때 신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이 신자로 하여금 온당한 자리를 지키게 만들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마땅한 존경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sup>208)</sup>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삶 속에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sup>209)</sup>

## 1. 회개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옛 사람을 벗어버린 영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때로는 “성화”라는 개념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회개(Repentance)라고 불렀다. 칼빈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전과정을 회개라는 개념으로 포괄시켰다.<sup>210)</sup> 회개의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칼빈은 회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한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회개가 가능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깨닫게 될 때야 참된 뉘우침이 있다.<sup>211)</sup> 그리고

208) 「신약 10 히브리서」, 307.

209) 「기독교 강요」 IV. xx. 15.

210) John H. Leith, 71.

211) Charles E. Ewdards, 「칼빈의 경건생활과 기도」, 문석호 역, (서울: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가 회개를 통하여 시작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회개의 시작이 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사람의 생활이 모든 덕으로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활은 세상의 칭찬은 받겠지만 하늘에서는 가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에게 그의 권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리와 영광을 도적질하는 불경 행위이기 때문이다.<sup>212)</sup>

칼빈은 회개를 세가지 제목으로 나누어 검토했다.<sup>213)</sup> 첫째로 회개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생활을 전향하는 것으로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것까지도 전향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가식이 있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생긴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예배의 한 자세라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삶이다. 칼빈은 또한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두 부분으로 성립된다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악을 떠나라고 호소할 때 요구하는 것은 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육을 전멸시키라는 것이다.

칼빈은 회개라는 단어를 중생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sup>214)</sup> 중생의

---

생명의 말씀사, 1996), 152.

212) 「기독교 강요」, III. iii. 8.

213) 「기독교 강요」, III. iii. 8.

214)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123.

결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형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손상되어 거의 지워졌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었을 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두 부분인 죽음(mortification)과 갱생(vivification)으로 이루어진다. 이 개념들이 바르게 이해되기만 한다면 회개의 본질을 표현하는데 충분하다. 그것은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는 간절한 소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악한 생각을 빼어버리지 않으면 의를 행하려 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위선자들이 여러 가지 의식으로 외면으로는 회개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압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불법의 무거운 짐을 풀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다.

칼빈은 신앙과 회개가 구분되어야 하지만 분리 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 둘은 영속적으로 확고히 결합되어 있으나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개는 항상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sup>215)</sup>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생애 전체를 그분의 복종에 맞출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전체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헌신하면서 주를

---

215) John H. Leith, 73.

순순히 섬기는(worship)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분으로부터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개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사는 규칙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거부는 물론 우리 육신의 금욕, 천국의 생에 대한 명상을 요구한다. 신앙을 무시하고 자제하는 삶과 선행에 대한 교훈만 주장하는 회개는 세속 철학과 같다.<sup>216)</sup>

삶의 변화는 회개의 열매인 의와 공의와 자비를 통해서 나타난다. 인간이란 이익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는다. 인간은 진정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sup>217)</sup>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열매가 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수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다.<sup>218)</sup> 마음의 회개가 없는 어떠한 예배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은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하고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평생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게 하고 또한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이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sup>219)</sup> 칼빈은 예배의 삶을 살 때, 모든 행동으로 회개를 보이고 이를 증거 하는

216) 「신약 6 사도행전(II)」, 237-239.

217) 「구약 26 호세아」, 111.

218) Ibid., 130.

219) Hughes Oliphant Old, 236.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자기 부정의 삶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손이 필수요건이다. 하나님 예배는 진지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하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sup>220)</sup> 하나님은 깨끗한 예배를 귀중히 여기신다. 더럽혀진 사람은 속죄를 통하여 새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준비를 해야 한다.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자진하여 복종할 그 일이 너무 엄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sup>221)</sup>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하고 그를 시인하며 예배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주신 권한을 빼앗아 버린다.<sup>222)</sup> 칼빈은 성경의 교훈에 근거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영적 성숙의 한 과정으로 묘사한다.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sup>223)</sup>

자기 부정을 통해 우리는 육의 정욕을 버리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고난을 의미한다. 우리가 모든 힘을 주님

---

220) 「구약 3」, 521.

221) Ibid., 482.

222) 「신약 10 히브리서」, 59-60.

223) 「기독교 강요」, III. vii. 1.

을 섬기는데 쏟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삶의 매순간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갖가지 악이 찾아 들어온다.

자기부정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다. 자기부정은 우리가 육과 세상을 거절하고 새로 지음을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지배되고 움직여서 하나님께 자아를 의존하는 것이다. 이같은 자기 부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자기 몸까지도 바치는 것이다.<sup>224)</sup>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부양하고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를 깨닫고 응답하는 행위이다. 곧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롬12:1-2)인 것이다. 예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칼빈은 족장들의 경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함에서 출발하였고, 불변의 열정으로 항상 넘치며 왕성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주장한다.<sup>225)</sup> 칼빈은 참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공경하며 그분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정(un pur et vrai zele)이라고 한다.<sup>226)</sup> 이러한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

---

224) John Calvin,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22-23.

225) 「구약 1 창세기」, 30.

신들이 원하는 어떤 하나님을 무엄하게도 고안해 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구하며 자신들에게 계시되고 분명하게 나타난 그대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다.<sup>227)</sup>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칼빈은 특히 자기 부정의 삶은 주님의 본을 받아 십자가를 지는 모습 속에 표현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을 통한 내세의 삶이다.<sup>228)</sup> 주님과 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 나침반처럼 항상 자신의 시선을 천국과 내세를 향해 고정시키게 됨으로써 자신의 동료 이웃들을 충실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229)</sup>

예배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혀 경외와 찬양, 감사와 존귀를 돌리고 예배자들이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나야 한다. 아무리 장엄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 뜻에 합당치 못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예배가 생활에 연장되어 전인적인 삶의 응답이 되어져야 한다. 예배는 인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행위이다. 자신의 일체를 바쳐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226)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25-26.

227) John Calvin, 「칼뱅의 요리문답, 즈네브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교육 요강 및 신앙고백」, 26-27.

228) 「기독교 강요」, III, vi-vii.

229) Ronald S. Wallace,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박성민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5), 258.

때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언제나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우리의 자아의지(self-will)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격렬한 내적 싸움이 끝없이 발생한다(갈5:17).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이다.

칼빈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게 마땅한 존경이라면, 그에게 마땅한 유일한 경배는 의와 성결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없으면 사람은 상호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의의 시초이며 토대이다.<sup>230)</sup> 기도와 깨끗한 양심과 자기부정은 마음의 내적 믿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별 하는 제사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 신자들의 거룩한 선행은 모두 영적 제사인 것이다.<sup>231)</sup> 하나님은 제사의식만을 과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 곧 신앙과 사랑 속에 깃든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앙과 사랑이다. 신앙과 사랑,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께 인정된 것이요 언제나 하나님께 합법적이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sup>232)</sup>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 부분적으

---

230) 「기독교 강요」, II, viii, 11.

231) 「기독교 강요」, IV, xviii, 16.

232) 「구약 26 호세아」, 270-277.

로 이웃들을 위한 일이다.<sup>233)</sup>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또는 경외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들 사이에서 정당한 삶을 누릴 때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자들은 신자 상호간의 의를 존중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sup>234)</sup> 하나님은 이미 그의 가르침의 요약인 십계명 속에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의 원칙에 필요한 것을 모두 반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공정하고 해악 없이 행동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 줄 수 없다.

자기 부정이 이웃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적극적인 기능이다.<sup>235)</sup> 기독교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 행동을 바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칼빈은 자기부정의 삶은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르게 할뿐만 아니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고 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만큼 그 자신의 공로로 판단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심히 무가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성경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는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하여 경외와 사랑을 표현하라고 한다.

칼빈은 제네바에 있는 그의 교구민들이 모든 사람은 이웃이라는 사실을

---

233)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86.

234) Ibid., 27.

235) John H. Leith, 85.

망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sup>236)</sup>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친교 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굳게 믿었다. 칼빈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설교에서 사기성이 있고 압박감을 주는 사업상의 거래들을 비난했다.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과 물가는 감시의 눈이 살피는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만일 상인의 상품의 가격을 그 가치 이상으로 매긴다면 그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칼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하는 부자들을 비난하였다. 또 게으르기만 해서 아무 쓸모가 없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며 거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더 꼴사나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호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폐지하면 사람들끼리 실천하는 공평과 극기와 절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사와 심판자로서 공경할 때에 그러한 경배에서 그들은 서로 온화하게 또 해침 없이 살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첫 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과 올바른 종교적 의무들을 가르치시며,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승엄성을 경배하라고 하신다. 둘째 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그에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sup>237)</sup>

---

236) Ibid., 203-205.

237) 「기독교 강요」 II, viii, 11.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불결한 사람들이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추구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 더러운 오른손은 하늘의 거룩하신 분들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다.<sup>238)</sup>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예배를 더럽히는 것 즉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지상의 가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내세로 눈을 돌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 3. 기도의 삶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전체에서 기도를 논하고 있다. 기도란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의 열매로서 성도들이 일생동안 유지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열매이다.<sup>239)</sup>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행위이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참된 기도와 참된 믿음은 상호 분리할 수 없이 마음속에 연결되어 있다.<sup>240)</sup>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표출해 내는 믿음이다. 기도생활은 경건 생활의 실천이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한마음으로 모아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간구를 받으신다.<sup>241)</sup>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238) 「구약 26 호세아」, 365-367.

239) 「기독교 강요」, III. xx. 1.

240) 김재성, “기도론과 교회의 회복”,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 칼빈학회 엮음,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9), 167.

241) Ibid., 169.

은 기도라고 한다. 기도는 사람이 자기의 무력함을 인식함으로써 가능케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합당한 경외와 예배를 바치고 중심으로부터 진실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이 신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sup>242)</sup>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없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까닭에 그분 안에 있는 줄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우리는 기도로 그분에게 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참된 증거는 우리의 생활을 그의 율법에 따라서 고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서 드러나며 이 영적 예배의 핵심은 믿음과 여기서 나오는 기도이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우리들이 이웃을 상대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모든 상처, 사기, 강도질 및 온갖 악행을 삼가는데 있다. 그러므로 회개와 자기 부정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도가 잇달아 나오게 된다.<sup>243)</sup>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쪽은 아버지라 외치게 하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만이 올바르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교사이다. 성령의 역할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기도로 지도한다.<sup>244)</sup> 그리고 그리스도의 혜택에 참여케 하는 신앙은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sup>245)</sup> 우리가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이며 기타의 모든 중

242) Robert Weber, 「예배학」,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49.

243) 「신약 6 사도행전(II)」, 237-239.

244) Wilhelm Niesel, 155.

245) 「구약 6」, 186-188.

교적 의식보다도 중요하다.<sup>246)</sup>

칼빈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 믿음이 복음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유일하고도 안전한 요새와 같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예배를 함의하고 있다. 하나님은 경건과 믿음의 예배를 모든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이다.<sup>247)</sup>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가 없게 되거나 태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듯 하기 위해서이다.

칼빈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며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sup>248)</sup> 합당한 기도란 겸손한 마음으로 참되게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의 열쇠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sup>249)</sup>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자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교만한 태도로 무시함으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불신한다.

---

246) 「신약 10 히브리서」, 319.

247) 「구약 1 창세기(I)」, 197-198.

248) 장훈태, “칼빈의 기도론”, 「칼빈 신학 해설」, 300.

249) 김재성, 180.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반역자이며 완고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 신앙의 선고를 받게 된다. 위선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 점이 더욱 뚜렷하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교만한 태도로 무시하며 하나님의 친절한 초대를 의심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주요 부분을 빼앗는다.<sup>250)</sup>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뜻은 기도하는 일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성전을 깃발같이 세워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가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관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시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라는 것이다.<sup>251)</sup> 공적인 기도는 단순하고 직접적이어야만 하며 위선자의 공허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라틴어를 섞어서 헬라어로 해서도 안되고, 영어나 불어를 섞어서 라틴어로 해서도 안되며 자국어로, 즉 모든 회중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매일의 언어로 드러져야만 한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경건성이 없고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다 예배라는 형식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한 개인의 삶 속에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지금까지 구원의 목적으로서의 예배를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참된 예배를 산출하신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사역이 절

250) 「기독교 강요」, III. xx. 13.

251) 티모디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피영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272.

대적으로 요구된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하시  
고 또 우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와 연합이 되지 않는 예배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일 뿐 하나님과 상관이 없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회개의 삶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헌신하며 주를 순  
순히 예배하는 것이다. 또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이웃에게 의와 자비로  
맺어져야 한다.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자신을 부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요 이웃사랑이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손이 필수조건이다.  
하나님 예배는 진지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깨끗한 손으로 행하지 않으면 올  
바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예배를 귀중히 여기신다. 이러한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에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칼빈은 기독교적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로서 인간 영혼의 구원도 모두 이 최고 목표를 이  
루기 위한 것이다.<sup>252)</sup>

---

252) John H. Leith, 22.

## V. 교회의 목적으로서 예배

### A. 교회와 예배

앞에서 우리는 인간을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위함임을 살펴보았다. 칼빈은 지상에 교회를 존재케 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의 교회관은 그가 스트라우스버그에 머물고 있는 동안 성숙하였다. 칼빈은 부패한 로마 교회를 염두해 두고 그리스도와 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회관을 수립하였다. 무지하고 태만한 신앙인이 믿음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전진하려면 외적인 도움인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수단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과 같은 외적 수단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서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sup>253)</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일 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

253) 「기독교 강요」, IV. i. 1.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굶주릴 수밖에 없다. 칼빈 신학의 핵심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에서 어떻게 안정되게 보존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정돈이 잘 된 상태로 보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sup>254)</sup>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 1. 은혜의 외적인 수단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란 신자의 영적 향상을 도모해 주는 일체의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교회 자체, 말씀 전파, 주일성수, 기도 등을 의미하고 특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의미한다.<sup>255)</sup> 그 중에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은혜의 수단은 교회이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이다. 칼빈은 교회와의 교통이 하나님의 참된 예배에서 벗어난 우상 숭배와 불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기타 악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예배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듯 예배만큼 신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공중 예배를

254) 티모디 조지, 214.

255) Louis Berkhof, 「기독교 신학 개론」, 신복윤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285.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다.<sup>256)</sup> 그만큼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교회의 예배는 중요하다. 교회의 주된 활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일에 만일 교회가 실패한다면 교회는 친목 단체가 되거나 성경에 대하여 강의하는 강의실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교회는 참된 영적인 사명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sup>257)</sup> 지글러는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배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없다. 예배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회중의 자화상이다. 사실 예배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이다.”<sup>258)</sup> 웨버는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예배의 교회론적이며 성령론적인 그리고 표지로서의 성격을 주장한다. 즉 하나님께 대한 공중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구원사역의 선포와 규정 속에서 시작되고 유형적인 표지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259)</sup>

교회와 그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하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이다. 다른 사역의 동기는 예배를 통하여 얻는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결국 죽고 만다. 교회는 예배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구별된 실재로서 고백한다. 이러하여 예배는 교회로 하여금 그 참된 본성을 나타나게 한다.<sup>260)</sup>

256) 「기독교 강요」, IV. i. 5

257) 최병남, “예배의 성경적 이해”, 「성경과 신학」 6권 (1988), 88-90.

258) Franklin. M. Segler, 25.

259)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출판국, 1988), 17-22.

260) J. J. von Allmen, 「예배학 원론」, 정용섭·박근원·김소영·허경삼

칼빈은 교회가 바른 교리와 참된 예배에서 떠나면 참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한다.<sup>261)</sup> 특히 하나님 말씀을 떠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핵심체가 죽으면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또 그 기초라고 한다면 거짓말과 허위가 지배하게 된 곳에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미신으로 예배를 부패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기초한 참된 예배에서 떠난다면 참된 은혜의 외적 수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합당한 백성만이 그를 예배하는 것과 그들의 신앙심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우리들이 멋대로 새로운 것을 고안해 내면서 그럴 듯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다.<sup>262)</sup> 이러한 예배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 아니라 심판의 원인이 된다.

칼빈은 성전과 의식과 제사장들의 활동을 굉장히 자랑한 유대인 같이 카톨릭 교회가 교회 예배의 화려한 의식을 자랑하지만 그런 것은 교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한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 기초해야 할 예배가 미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상숭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외적으로 잘 보존될 수가 없다.

말씀대신에 거짓말을 섞은 패악한 조직이 교회를 지배하며 이 조직이

---

공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9), 39.

261) 「기독교 강요」, IV, ii, 1-6.

262) 「구약 26 호세아」, 488-490.

순수한 빛을 꺼버리기도 하고 희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참을 수 없는 각종 미신으로 더럽혀졌다. 기독교 교리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음에도 교리는 완전히 매장되고 제거되었다. 공중 집회는 우상 숭배와 불 경건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sup>263)</sup>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그릇되게 예배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은혜의 외적 수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다.

## 2. 선택자들의 공동체

칼빈은 교회론에서도 선택을 강조했다.<sup>264)</sup>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교회의 근거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가시적 측면만을 지닌 것이 아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의 교제, 다시 말해서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이다.<sup>265)</sup> 이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궁극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이다.<sup>266)</sup>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영광을 높이고 모든 인간의 종교적 노력과 열성과 공로를 겸허하게 한다.<sup>267)</sup>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신(神)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 주시지 않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전달하여 주셨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로 더욱

263) 「기독교 강요」, IV. ii. 2.

264) 「기독교 강요」, IV. i. 2.

265) Francois Wendel, 「칼빈-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357.

266) Wilhelm Niesel, 168.

267) 김영한, 20.

가깝게 친근한 끈으로 하나님에게 묶어 두시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훈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자들에게 참다운 신지식을 전수한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즉 선택자들에게 독특한 능력(a singular power)을 부여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sup>268)</sup>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연합된 교회에 확실히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선택받은 무리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sup>269)</sup>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한 몸으로 자라간다. 한 성령, 한 예배 안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존립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같이 동요하거나 파멸될 수 없다. 둘째로, 교회는 영원 불멸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가 찢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신자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품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sup>270)</sup>

칼빈은 제네바에서 기독교 공동체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제네바 지역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는 추방제도를 실시한 것이다.<sup>271)</sup> 벨코프(Louis Berkhof)는 종교 개혁은 외형적인 기관으로서의 교

268) 「기독교 강요」, I. vii. 5.

269) 「기독교 강요」, IV. i. 2.

270) 「기독교 강요」, IV. i. 3.

회로부터가 아니라 성도의 무리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는 진리를 전면에서 부각시켰다.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자 그리고 머리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한다.<sup>272)</sup>

하나님을 예배했던 구약의 공동체는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의 집회이다.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확인된 것이다(신4:10).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의 선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sup>273)</sup>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타락한 백성으로부터 분리하신 것은 애굽에서는 깨끗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합당하고 엄숙한 예배를 요구하신다.<sup>274)</sup>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다른 가증스런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신성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상 위에 존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sup>275)</sup> 하나님 예배는 마땅히 이방인들의 모든 미신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성소, 하나의 제단만을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모든 우상들 사이에 대한 구별의 상징이 되고 진정한 종교가 미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도록 하려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세상과 구별할 방법을 세워야 한다.<sup>276)</sup>

271) John H. Leith, 61.

272) Louis Berkof, 「별코프 조직신학」,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821.

273) 「구약 3」, 출3:5, 62.

274) Ibid., 출5:1, 108.

275) 「구약 1 창세기(I)」, 창6:1, 210-211.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간의 이 신성한 만남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행위와 임재와 말씀 선포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희생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만남의 표였다.<sup>277)</sup> 신약의 교회는 죽음을 넘어선 만남에서 구별된다. 그들의 모임은 선택된 백성으로 자신을 의식하고 그들 자신을 고백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회집된 종말론적인 백성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선택된 공동체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사상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예배 행위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sup>278)</sup>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교회가 인식할 때 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청중들의 수와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교회가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 3. 예배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애굽에서 선택되어 나온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태어났고, 교회의 생명

---

276) 「구약 4」, 99.

277) J. J. von Allmen, 39-40.

278) 김영한, 20.

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림으로써 지속되게 된다.<sup>279)</sup>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 예배는 교회가 지상에서 가지는 최고 기능이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자발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성령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예배는 신약 시대 성도들의 분위기와 일치된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교회를 덕스럽게 해야 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sup>280)</sup>

칼빈은 교회에서 예배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칼빈의 교회를 방문했던 한 피난민은 그 교회의 예배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노래하는데 그것은 사랑스러운 광경이다. 나는 피난민들의 이 작은 무리를 보았을 때, 슬픔 때문에 울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로 인도하신 것을 그분께 감사드리며 노래했기 때문에 울었다.<sup>281)</sup>

칼빈은 예배 공동체를 떠난 개인적인 예배는 기독교적 삶의 영적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제네바 요리문답은 “사람들은 모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공기도를 드리며 신앙고백을 하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입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공적으로 행함으로 형제 각자가 서로에게 신앙고백을 받으며 그의 본을 보고 자극을 받아 따라 하게 되는 것이다.<sup>282)</sup>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279) Franklin M. Segler,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60), 194.

280) 최병남, 88.

281) T. H. L. Parker, 34.

282) John H. Leith, 194-196.

자기 백성과 공동체를 만나신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체험하고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즐거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 상호간의 관심과 교제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랄프 마틴(Ralph Martin)은 모든 예배 행위들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산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283)</sup> 칼빈은 또한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때가 많다고 한다.<sup>284)</sup>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건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칼빈은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옛날 율법 하에서 모든 신자가 성소 앞에 모이라는 명령을 받은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야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양모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일치는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이 원칙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모독할 뿐이다.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으로 성전들이 자신에게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성별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경솔하게 이를 시작한다면 기이한 조각품이 이 그릇된 출발에 달라붙어 한없는 해독을 퍼뜨리게 된다.<sup>285)</sup>

---

283) 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2.

284) 「기독교 강요」, IV. i. 6.

여호와께서는 자기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정식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지 않는다.<sup>285)</sup>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계속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모여 하나가 되었다면 신앙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칼빈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다.

## B. 로마 교회 예배에 대한 비판

### 1. 교회법의 남용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0장에서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얼마나 예배를 악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그는 로마 교회가 예배를 부패케 하는 원인을 교회법의 남용에서 찾았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교회법을 악용했다. 카톨릭 교회의 예배는 교회법을 통하여 예배에서 영적인 자유를 말살한다.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법으로 인간 전통을 따르게 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많은 짐을 지게 하였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논의한 위정자들에 대한 존중 부분을 강조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 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말

---

285) 「기독교 강요」, IV. i. 5.

286) 「구약 26 호세아」, 79.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이 된다.<sup>287)</sup> 칼빈은 당시 “교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하고 필요한 경배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데 이런 법은 영혼을 잡아매는 올가미와 같다고 비판하였다.<sup>288)</sup> 교회 법에 의해서 제정된 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의 표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 법을 준수하는 짐으로 억누르고 있다.<sup>289)</sup>

사람이 정한 법을 따라 경배하는 자들도 법에 복종하는 점에서는 겸손한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복종하는 법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의적 숭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고안한 종교라는 뜻이다.<sup>290)</sup>

로마 교회는 교회법의 권위를 가지고 예배 의식을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칼빈은 교황주의자가 의식에서 쓰고 있는 연극적인 도구들에는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가면만이 있을 뿐 유익이나 결실은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한다. 그럼으로 인하여 당시에는 무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속 지체로 심히 교만한 사람들까지도 화려한 의식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의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들이 제정한 교회 법을 제거하면 교회가 완전한 기형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이 곧 자의적 숭배

---

287) 「기독교 강요」, IV. x. 5.

288) 「기독교 강요」, IV. x. 6.

289) 「기독교 강요」, IV. x. 27.

290) 「기독교 강요」, IV. x. 24.

이며 몸을 괴롭게 하는 육적인 지혜라고 정죄한다.<sup>291)</sup> 이것은 유일한 입법 자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자유를 손상하는 것이다.

## 2. 인위적 예배의식 제정

칼빈은 당시 로마 카톨릭의 예배 의식은 전제적이며 경박하며 성경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예배는 바른 고정된 요소(fixed parts)가 있어야 한다. 전혀 새로운 예배 자료들로만 근거하여 세운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인 예배의 현장이 그릇된 고정 요소들로 그 의미를 잃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발생되지 못하고 있었다.<sup>292)</sup> 로마 천주교회는 여러 가지 무의미한 의식을 사용하여 하나님 예배를 부패시켰다. 교황이 사용한 것, 성직자들의 특별 예복,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 교회 안에 제단을 세우는 것, 세례 때 십자가 표시 하는 것, 예수의 명칭 앞에 절하는 것, 성만찬때 무릎을 꿇는 것 등을 행하게 하였다.<sup>293)</sup>

예배시 듣지 못한 언어 속에 진행되어 자연히 하나의 구경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맹목적인 헌신과 신비의 강조는 예배자들을 지극히 피동적인 존재들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다. 더

---

291) 「기독교 강요」, IV. x. 11.

292) 정장복, “예배 의식에 대한 복음주의적 이해” 「성경과 신학」 제 6권, 30-31.

293) Alvin Roy Sneller, 361.

나아가 미사의 집행은 사제들의 독점적인 무대로 차차 변질되어 갔는데 사제들이 절대적인 숭상을 받게 되어 탈선의 길을 열었다. 특별히 성만찬의 순서는 화체설을 주장하며 성찬에 참여자로 호기심에 빠지게 하였다. 미사는 알지 못하는 언어 속에서 청취를 불가능하게 했고 설교는 무덤 속으로 퇴락 되었으며 대부분의 교구 신부들은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 무식하였었다. 성경 말씀이 봉독 되어져야 할 부분은 성자들의 생활담과 전설로 채워졌고 성경은 예배자들의 모국어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사의 헌금과 면죄부의 수입은 성직매매와 착취의 근원이 되었다.<sup>294)</sup>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미사와 여러 가지 고안된 형식으로 미사를 드리면서 모든 종류의 죄악이 속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려고 하고 스스로를 치켜세움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예배를 더럽히고 타락시킨다.<sup>295)</sup> 교황주의자들이 무엇을 예배하든 간에 그것은 바알이며, 그들은 동시에 자기들의 수호신들을 자기들의 발림으로 모시고 있다.<sup>296)</sup>

교황주의자들은 성당으로 들어가자마자 마리아나 어떤 성인의 동상을 향하여 가지만 감히 하나님께로는 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며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예배라고 부른다.<sup>297)</sup> 그들은 경건한 열성과 좋은 의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음행을 범하고 있다.<sup>298)</sup> 교황주의 자들은 교회법의 권위로 만든 인위적 예배 의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속이며 그들이 숨을 곳을 찾는

---

294) William Maxwell, 72.

295) 「구약 26 호세아」, 394-395.

296) Ibid., 113-115.

297) Ibid., 130-131.

298) Ibid., 194-196.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sup>299)</sup>

교황과 그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의 영적 예배의 근거를 고안에 두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를 사람에게로 옮겨 자기들이 영혼들을 지배하려고 한다.<sup>300)</sup>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의 형상들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구실을 붙이기 위한 허무맹랑한 핑계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상숭배는 참 하나님을 결코 예배한 것이 아니며 육적인 인간이 독자적으로 고안해 낸 가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다.<sup>301)</sup>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들이 꾸며낸 의식을 하나님에게 대담하게 뒤집어씌우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한계선을 지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첨가물과 고안을 통해 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나 그들은 순수한 예배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인간 스스로 고안해 낸 예배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불 신앙적 멸시를 드러낼 뿐이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그분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얽잡아 보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인간이 만든 법에 따라 주를 경배하는 것은 곧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다. 칼빈은 구약 성전예배 의식 가운데 희생제물들에 소금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맛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같다고 본다. 희생 제사에서 참된 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사람

---

299) Ibid., 227-229.

300) 「신약 6 사도행전(II)」, 101.

301) 「신약 7 로마서」, 66.

이 조작해낸 모든 종류의 예배는 맛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미신으로서 더럽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올바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지혜라는 구실을 붙여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sup>302)</sup>

칼빈은 로마 교회가 예배에 사용된 의식을 속죄의 제사라고 하나 그것은 부패한 의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교황 제도하에서 사용하는 의식들은 가르침과 분리되었고 순전히 무의미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구속한다. 끝으로 욕심 많은 사제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고안한 의식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작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모든 의식이 더러운 이익에 팔려 있어서 이 불경하고 모독적인 장사를 교회에서 일소하려면 그 의식의 적지 않은 부분에 잘라 버려야 한다.<sup>303)</sup>

로마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정하고 또 구원에 필요한 일들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는 구실로 양심을 여러 가지 가책으로 속박하고 있다고 칼빈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칼빈은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전통이 사도적이라고 자부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부정하며 또 비난하고 있다

사도들의 교훈 전체의 목적은 새로운 규정으로 양심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과 우리 인간이 조작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사도들의 명령이 기록에 남지 않았으나 관습과 관례에 의해서 전달되었다고 그들이 지껄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sup>304)</sup>

칼빈은 로마 교회가 예배에서 쓰고 있는 유전과 인간의 조작은 성경과

---

302) 「구약 6」, 298.

303) 「기독교 강요」, IV. x. 15.

304) 「기독교 강요」, IV. x. 18.

그리스도가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악용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의식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고, 예배의 진정한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이 유일한 입법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sup>305)</sup> 칼빈은 경박한 조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으로 신성한 예배를 더럽힐 뿐임을 밝히고 있다. 교황을 예배하는 모든 의식은 대단히 나쁜 미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하는 우두머리들과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눈이 멀었음이 틀림없다.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것과 혼합하는 것은 위법이 었던 것이다.

### C. 참된 예배

칼빈은 로마 교회가 예배를 부패케 했고 악용함으로 참된 예배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로마 교회가 정한 법을 따라 예배하는 모습이 경배하는 자들로 법에 복종하는 겸손한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의적 숭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고안한 종교라고 말한다.<sup>306)</sup>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305) 「기독교 강요」, IV. x. 23.

306) 「기독교 강요」, IV. 10. 24.

## 1. 신지식에 기초한 예배

칼빈은 참된 예배는 신지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예배라고 한다. 이 예배를 ‘순수한 예배’라고 표현한다. 칼빈은 그의 강요와 주석에서 예배에 대한 수식어로 ‘순수(Pure)’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신지식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며 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출발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로 꾸며진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지식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건을 훈련하고 믿음에 더 큰 진보를 거듭하고 하나님께 더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다.<sup>307)</sup> 참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릇된 신지식에서 나온 거짓되고 타락한 온갖 형태의 예배와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통렬히 비난하셨다. 신지식에 충실하지 못한 예배는 우상숭배와 같이 자신 속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행위와 같다.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을 위장이나 위선으로 더럽히지 않을 때, 그것은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될 은총이다.<sup>308)</sup> 우상숭배와 인간이 만든 모든 허망한 의식은 하나님 예배를 타락시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장하여야 하는 예배가 환상이나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sup>309)</sup>

참된 예배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야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거짓된 더러운 것과 예배에 합당치 않는 모든 요소들을

307) 「구약 이사야」, 62.

308) Ibid., 367.

309) 「구약 4」, 75-77.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10)</sup>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사람의 눈과 귀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으로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그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 위선자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많은 예식을 사용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배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질 때에만 참으로 성취될 수 있다.<sup>311)</sup> 공중 예배는 순수하며 말씀에 대한 위엄이 있어야 한다. 예배는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과장된 허식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예배 의식에서 신지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화려한 것들과 생명력이 없고 연극 같은 잡동사니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식은 단순해야 한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 형식은 올바른 예배의 방식을 버리게 하는 매우 많은 시험거리가 된다.<sup>312)</sup>

신지식에 충실한 참된 예배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한다. 칼빈이 예배에 사용되는 예배 의식이 단순해야 하는 것은 의식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313)</sup>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하는 예배는 모두가 부패하고 유해한 것이 되고 만다. 참된 예배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여 신자들을

---

310) Charles E. Edwards, 155.

311) John Calvin, 「구약 26 호세아」, 270-277.

312) John Calvin, 「구약 3」, 417.

313) 「기독교 강요」, IV. x. 14.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 의식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죄와 형벌의 무거운 짐을 벗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복잡한 모든 의식을 완성하셔서 단순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의식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영혼에게 새로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사도들의 예를 들면서 사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고 한다.<sup>314)</sup>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새로운 의식과 규정으로 양심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다. 인간의 조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더럽히는 것, 즉 신지식에 충실치 않은 우상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 2. 영적인 예배

칼빈은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인 예배는 구원의 목적에 충실한 예배이다. 구원받은 심령이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충실히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는 로마서 12장 1절, 베드로 전서 2장 5절, 요한복음 4장 23절, 시편 51편 17절과 같은 구절에 기초를 두고 있

---

314) 「기독교 강요」, IV. x. 18.

다. 영적인 예배는 요한복음에 언급된 대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이며 그것은 베드로 전서 2장 5절의 영적인 제물이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이며 또한 시편 51편 17절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다.<sup>315)</sup> 참된 예배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심령의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또 삶의 모든 의무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sup>316)</sup>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분으로 깨닫는다면 훨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일치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의 참 예배는 언제나 영적이며, 그러므로 결코 외적인 화려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하여 피조물과 동일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외적인 모습이 장엄하고 엄숙하다 해서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도 영적인 것의 예표이지 외형적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성전에서 사용된 모든 외적인 용품이나 형식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예배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sup>317)</sup>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고 정당

---

315) Hughes Oliphant Old, 235-236.

316) 「구약 26 호세아」, 104-106.

317) Ibid., 119-120.

한 목적을 지니지 않은 모든 예배 요소들은 그것 자체가 헛되고 무가치할 뿐이다. 위선적이고 현혹시키는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를 망친다. 경건한 자들은 외관적인 모양에 주력하지 않고 참된 진리와 본질을 존중하는 것이다. 예배에 사용된 의식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은 의식이다. 예배 의식이 복잡해지는 것은 예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영성의 쇠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청교도들도 예배에 있어서 의식의 단순성은 예배의 영적인 성격을 지켜주는 보호장치라고 믿었다.<sup>318)</sup>

하나님께서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를 다 살피신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나약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므로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는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예배 속에 영적인 것이 없다면 그 예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예배와 동일하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의와 거룩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성경에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

318) 김남준, “왜 우리의 예배에는 영광이 없는가”, 「목회와 신학」 1998. 9월호, 57.

것이다.<sup>319)</sup> 영적 예배는 모세의 율법에 있는 육적인 제사와 대조되며, 의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에서 사도는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언중에 모세의 율법에 있는 육적인 제사와 대립시킨다.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한다(히13:16). 그래서 빈궁한 바울을 도운 빌립보 교회 신자들의 관용은 향기로운 제물이며, 신자들의 모든 선행은 영적 제사인 것이다.<sup>320)</sup>

하나님과 만남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 가시적인 의식을 주었지만 이제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제사와 외형적인 예배의 그 모든 겉치레에 관심이 없고 오직 신실한 자들의 영적인 예배에만 관심이 있다. 외면적인 의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만들지 못하며 경건의 보조 수단에 지나니 않는다.<sup>321)</sup>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정체성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 3. 균형 잡힌 예배

균형 잡힌 예배는 교회가 그 목적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가 교회 됨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만 가능하다. 참된 교

319) 「구약 1 창세기(I)」, 165.

320) 「기독교 강요」, IV. xviii. 16.

321) 「구약 2 창세기(II)」, 176.

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보존하게 하셨다. 교회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예배자의 영적 자유를 속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야 한다. 교회가 만든 의식들로 예배자에게 새로운 멍에를 지운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응답을 할 수 있는 영적 자유가 있으면서 또한 의식이 잘 균형을 갖춘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교회가 제정한 예배에 대한 모든 규범이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참된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권력의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 말씀에 충실한 예배 모범들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자유로운 응답을 가로막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0장의 논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치 질서를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 따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자유가 손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칼빈은 행위가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과 같이 양심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sup>322)</sup> 선한 양심은 곧 속마음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활발한 동경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성실한 의도라는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리야 한다.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

322) 「기독교 강요」, IV, x, 4.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이 일을 도와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영적 자유가 있다. 이 자유가 우리를 금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다 기꺼이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가 주어졌다.<sup>323)</sup>

교회는 이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칼빈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운 인간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과 행위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다.<sup>324)</sup>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랑의 응답인 것이다. 즉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sup>325)</sup> 죄에서 해방된 인간의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로 드러지는 것이 예배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그 양심이 무거운 짐에 억눌리거나 교회법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행해지는 안되고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반응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응답인 것이다. 이것은 예배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에 충만하여 선택된 예배 공동체에 거하며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지 않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칼빈은 또 한편으로 예배에서 누리는 각자의 자유가 예배에 필요한 예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덕을 위하여 약간의 자유는 제한

---

323) 「신약 10 베드로 전서」, 402-403.

324) J. A. Kay, *The Nature of Christian Worship*, (London: Epworth Press 1953), 70.

325) Hoon Paul Whitman,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77.

할 수 있다고 한다.<sup>326)</sup>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식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연단 시키는 보조물로 사용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예배 의식들의 도움을 받는 동안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사모하게 되며 그 예배만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교회는 예배의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균형이 잡히도록 예배 모범을 수립해야 한다. 신앙인의 모든 의식과 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기를 위한 목적에서 주어졌다.<sup>327)</sup> 예배의식에서 모든 불필요한 동작이나 행위 혹은 언어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하나, 의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sup>328)</sup>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며 또한 외적 의식들을 중요시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은 오직 믿음과 순전한 양심, 기도와 감사의 마음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sup>329)</sup> 한편으로 마음의 내적 정결이 요구되는 백성들에게 참된 거룩함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만드는 예배의 외적 요소들이 필요하다. 외적인 의식이 그 합당한 목적과 관련지어 질 때, 내적인 요소는 충분히 드러나는 균형잡힌 참된 예배가 행해지고, 그것들은 경건에 유익한 도움이 된다.<sup>330)</sup>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것에 대한 위엄이 참된 예배의 모형으로 제시된 것은 그들이 정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임하게 하려는 뜻이다. 이 모형을 통해서 자신의 무가치성을 지적 받은 것은

326) 「기독교 강요」, IV. x. 32.

327) 「구약 2 창세기(II)」, 126-127.

328) John H. Leith,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212-213.

329) 「신약 6 사도행전(II)」, 161-163.

330) 「구약 3」, 308.

그들이 더욱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두려워 마음이 회심을 낳도록 하려는 뜻에서였다.<sup>331)</sup> 모든 예배의 외적요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마음에 올바르게 그리고 진지하게 깨달아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합당한 경의와 존경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엄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든 국면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거룩한 말씀에 충실히 포함시키며 분명히 표현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향한 양심의 자유로운 예배를 제한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주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 성경은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에 대해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명령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렇기에 칼빈은 한 시대에 만들어진 예배 규범은 그 시대의 형편에 의존된 것이므로 모든 시대에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이다.<sup>332)</sup>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의 표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칼빈은 설교와 성례전의 균형을 이루려고 했다. 예배 의식 순서에 설교와 성례전이 포함되기를 원했다. 그는 의식이 매주 시행되기를 원했다. 말씀 선포 없는 성례전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세의 미사가 설교와 가르침이 없이 마술처럼 행해지는 것에 반대하면서 설교없는 성례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성례전은 설교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sup>333)</sup> 성경말씀을 높이고 강조한 칼빈은 성경봉독과 설교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예배를 개혁했으나

---

331) 「구약 4」, 145-146.

332) 「기독교 강요」, IV. x. 30.

333) 김영한, 138.

성례를 소홀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성례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앙함에 있어서 균형을 잃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성례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sup>334)</sup>

교회는 균형잡힌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균형잡힌 참된 예배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있어야 한다.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교회의 목적으로서의 예배를 살펴보았다. 칼빈은 교회의 목적도 예배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칼빈이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에서 안정되게 보존되는 일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정돈이 잘 된 상태로 보존되는 일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의 공 예배는 이를 위한 외적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예배는 선택된 공동체 속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구별된 상태로 드러진다. 교회는 예배를 위한 공동체이다. 칼빈은 예배를 상실하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어떤 세속적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

334) 김영재, 110.

섬기는 권세이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불경건하게 조작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예배를 악용하였다. 칼빈은 신지식에 충실하여 인간이 만든 어떠한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오직 신지식에 충실한 '순수한 예배'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목적에 충실하게 상한 심령으로 자신이 영적인 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추구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의식과 영적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잡힌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했다.

## VII. 결 론

지금까지 칼빈 신학의 목적이 예배임을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 목적도 참된 예배를 위함이며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그리고 지상에 교회를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위함이다. 칼빈이 그의 신학에서 중심으로 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전 역사를 전개하셨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칼빈은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 지식에 기초한 예배, 영적인 예배, 균형잡힌 예배를 통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

예배는 사람들의 신학적 확신과 도덕적 신념 모두를 포함하며 동시에 그런 확신을 형성해주기도 한다. 신앙이란 신조로 표현되기 이전에 예배로서 표현된다. 칼빈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성경적 신학적 견실성을 주장했다. 모든 예배의 실행은 성경의 가르침의 뒷바침을 받아야 하며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335)</sup> 칼빈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필히 성경적 원리를 가차없이 적용하였다.<sup>336)</sup> 참된 예배는 인간적인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야 한다. 단지 인간은 하나

---

335) 김영재, 100.

336) John H, Leith, 「개혁교회와 신학」, 210.

님의 목적에 충실할 뿐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적 원리를 따랐던 칼빈의 제네바 교회가 드렸던 예배가 그렇다고 해서 생동감이나 감격이 없는 예배는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화음의 찬양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모든 미술품이 제거된 화려하지 않는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며 긴 설교 속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교회는 성경과 초대 교회의 예배를 기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고 성도의 마음에는 환희와 적극성이 있었다. 칼빈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를 개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한국 교회는 1990년대 이르러 예배 방법의 전환을 통하여 침체된 예배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자 존 웹버 목사의 빈야드 교회의 예배<sup>337)</sup>, 찬양 예배<sup>338)</sup>, 구도자 예배(seeker sensitive service), 열린 예배(open worship)<sup>339)</sup>, 멀티미디어 예배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예배 방법의 도입은 바른 예배관이 부재(不在)한 한국 교회에<sup>340)</sup>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예배의 방법의 도입이전에 참된 영적 사명을 감당

337) 박삼열, “빈야드 열풍 어떻게 불고 있나”, 「목회와 신학」, 1995. 6월호, 191-192.

338) 홍정수·하스데반·오영걸, “찬양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목회와 신학」, 1995. 10월호, 97-117.

339) 김기영, “미국교회의 구도자 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1997. 4월호, 65.

340)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 출판사, 1998), 286-290 쪽과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6), 22-41쪽을 참조 바람.

하기 위하여 칼빈이 말하는 참된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참된 예배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새로운 예배 방법의 고안과 도입에만 힘쓴다면 교회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다. 칼빈은 부패한 카톨릭 미사에 반대하여 새로운 예배 의식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단지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신 것을 확고한 규칙으로 존속하려고 노력했다.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개발해서 예배시간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적 예배를 보존하고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지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예배의 요소적인 면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예배의 참된 대상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다.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예배 이전에 예배를 위한 합당한 교육과 지도가 없다면 자신이 알고 생각하는 신을 섬기는, 참으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같다. 성경적 예배에 대한 바른 교육이 있을 때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배 이후의 삶도 또한 구원의 목적에 충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神前)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셋째, 교회는 늘 성경에 비추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배 방법 하나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며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는지 또 성도에게 어떠한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식과 영적 자유가 균형잡힌 예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지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까지 도구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행동이다. 균형잡힌 예배는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수적 부흥을 함께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된 예배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한편으로 예배의 초점이 갈수록 하나님보다는 인간에게 맞춰지고 성경적 원리보다는 시대적 방법론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 칼빈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를 하나님께 맞추어 보려고 노력했고 시대적 요구나 방법론보다는 성경적 원리를 추구하려고 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칼빈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범했던 여러 방법으로 예배를 대처하려는 우를 범치 않으려면, 칼빈이 성경을 기초하여 세우고자 했던 참된 예배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서적

- 김기현. 「한국 교회의 예배와 생활」. 서울: 양서각, 1984.
- 김득룡. 「현대 교회 예배학 신강」. 서울:충신대학 출판부, 1992.
- \_\_\_\_\_. 「현대 목회신학 원론」. 서울:충신대학 출판부, 1991.
-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6.
- \_\_\_\_\_. 「현대 예배학」.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3.
- 김영재. 「교회와 예배」.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사, 1997.
-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5.
- 박근원. 「오늘의 예배론」,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0.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영산 연구원 편. 「교회와 예배」, 서울: 서울서적, 1988.
- 오성준.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 하나출판사, 1994.
- 유선호. 「예배 갱신 운동의 정체(1)」, 서울: 할렐루야 서원. 1993.
- 이기춘. 「한국적 목회 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 신학 대학 출판부, 1989.
- 이상운. 「목회학」,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2.
-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7.

- 이종윤. 「한구교회의 종교개혁」,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대계」,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 \_\_\_\_\_. 「칼빈주의 연구」, 서울: 칼빈주의 연구원, 1992.
-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 \_\_\_\_\_.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문, 1999.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5.
-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 입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허일룡, 「성서적 예배론」, 서울: 총회출판국, 1994.
- Alvin Roy Sneller, 「칼빈주의 신학과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1988.

## 2. 번역서

- Allmen, J.J. von. 「예배학 원론」, 정용섭 · 박근원 · 김소영 · 허경삼 공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9.
- B. Warfield, Benjamin. 「칼빈과 어거스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9.
- Berkhof, Louis, 「기독교 신학 개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_\_\_\_\_,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 ·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  
제스트, 1992.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김종흠 · 신복윤 · 이종성 · 한철하 공역, 서  
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_\_\_\_\_. 「존 칼빈 원저 성경 주석 요약」, 서울: 성서교제 간행사,  
1992.

- \_\_\_\_\_. 「존 칼빈 원저 성경 주석 신약」, 서울: 성서교제 간행사, 1992.
- \_\_\_\_\_. 「칼빈의 성경관」, 반석 문화사 편집부. 서울: 반석문화사, 1992.
- \_\_\_\_\_.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_\_\_\_\_. 「갈뱅의 요리문답, 즈네브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교육 요강 및 신앙고백」,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 \_\_\_\_\_.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동현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4.
- Carden, Allen . 「청교도 정신」,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 Davis, Horton. 「청교도 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5.
- Dunn, Samuel. 「요한 칼빈의 신학 진수」 김득룡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Edwards, Charles E. 「칼빈의 경건생활과 기도」, 문석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Harrelson, Walter. 「구약 성서의 예배」, 장일선 역, 서울: 한국기독교 출판사, 1989.
-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 조지, 티모디.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피영민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4.
- Jones, Ilion T.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 Knight, Harold. 「칼빈의 신학사상」, 기독교 학술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6.
- Leith, John H. 「개혁교회와 신학」, 황승룡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 \_\_\_\_\_,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6.
- \_\_\_\_\_,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반석 문화사, 1992.
- MacArthur, John. 「참된 예배」,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 1986.
- Martin, Ralph p. 「초대교회 예배」, 오창윤 역, 서울: 은성, 1986.
- McNeill, John T.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양낙홍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사회, 1983.
- Parker, T. H. 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Peterson, Robert A. 「칼빈의 구원 도리」, 황영철 역, 서울: 풍만 출판사, 1987.

- Rayburn, Robert G. 「예배학」, 김당생·강귀봉 공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Ryle, John C. 「예배하는 생활」, 지상우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 Segler, Franklin M. 「예배학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9.
- Shaffer, Robert E. 「예배 의식의 변천서」, 김기곤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93.
- Wallace, Ronald S.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8.
- \_\_\_\_\_ .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박성민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5.
- Webber, Robert E.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8.
- \_\_\_\_\_ . 「예배학」,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품만 출판사, 1985.
- Wendel, Francois. 「칼빈-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William Ames. 「신학의 정수」, 서원모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Williams, G. 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3.
- White, James F. 「개신교 예배」,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두메이그, 에밀.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장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5 .

### 3.국외서적

Anderson, Ray S. ed. *Theological Foundation for Ministry*. Grand Rapids; Eendmans, 1979.

\_\_\_\_\_. *The Praxis of Pentecost*.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1.

Black, Evan Imber. *Rituals for Our Times*.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ing, 1986.

Milner Jr., Benjamin Charles.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 E. J. Brill, 1970.

Cullmann, Oscar. *Early Christian Worship*. London: SCM Press, 1951.

Forrester, Duncan and Others. *Encounter with God*. London: T.& T. Clark Limited, 1983.

Jones, Ilion T.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53.

Kay, J. A. *The Nature of Christian Worship*, London: Epworth Press 1953.

Maxwell, William D.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 Nicholls, William. *Jacob's Ladder: The Meaning of Worship*, Richmond: John Knox Press, 1958.
- Old, Hughes Oliphant. "John Calvin and The Prophetic Criticism of Worship", *John Calvin & The Church*, edited by Timothy Georg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 Rowley, H. H. *Worship in Ancient Israel. Its Forms and Meaning*. London: Spck Press, 1981.
- Segler, Franklin M.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60.
- Turnbull, Ralph G.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 Underhill, Evelyn. *Worship*,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7.
- Waitman, Hoon Paul. *The Integrity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 White, James F.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New York: Abingdon Press, 1980
- \_\_\_\_\_. *New Forms of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 4. 논문 및 정기 간행물

- 강사문.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배", 「교회와 신학」, 제 25집.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부 출판부, 1993.

- 고영민.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예배유형”, 「성경과 신학」, 제 10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김경재. “한국의 종교심성과 구원”, 「구원과 종말」, 서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2
- 김기영, “미국교회의 구도자 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4월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 김기현. “예배와 생활의 일치를 위한 교회갱신”,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1983.
- 김남준, “왜 우리의 예배에는 영광이 없는가?”, 「목회와 신학」, 1998. 9월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김덕룡. “한국교회 예배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90.
- 김만형. “구도자 예배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7. 4월호.
- 김영재.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반성과 갱신을 위한 제언”, 「성경과 신학」, 16권, 1994.
- \_\_\_\_\_, “한국 교회의 예배와 개혁주의 전통”, 「신학정론」, 17권,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사, 1991.
- 김영한. “개혁신학의교회론”, 「성경과 신학」, 14권,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서울: 기독 지혜사, 1993.
- 김재성, “기도론과 교회의 회복”,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 칼빈학회 역음,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9.
- 김재준. “한국의 재래종교와 그리스도”, 「기독교사상강좌」, 제 3집.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63.

- 류동식. “오늘의 선교적 상황과 타종교 이해”, 「한국교회와 신학의 과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문상희. “무속신앙의 윤리문제”, 「한국교회와 신학의 과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박삼열. “빈야드 열풍 어떻게 불고 있나”, 「목회와 신학」, 1995. 6월호,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백천기. “공예배의식 갱신에 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4.
- 신복윤. “칼빈의 교회관”, 「성경과 신학」, 제 1권.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오덕교. “교회사에 나타난 예배” 서울: 도서출판 햇불, 「성경과 신학」, 6권. 1988.
- 우문선. “한국개신교 예배의 본질과 표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1986.
- 원종천. “그리스도와 연합론”,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 칼빈학회 역음,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9.
- 은준관.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예배”,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 서울: 연세대학교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 이상규. “구도자 예배가 가지는 예배적 약점”, 「목회와 신학」 1997. 4월.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이성남. “초대교외의 예배”, 「예배갱신과 목회」.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1991.
- 이수영. “경건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역음, 서울: 대한기독교

- 서회, 1998.
- 이정희. “개신교 예배학에 비추어본 한국교회의 예배” 성경과 신학10권 1991.
-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예배”, 「성경과 신학」, 제 6권, 서울: 임마누엘, 1988.
- 장장복. “예배의식에 대한 복음주의적 이해”, 「성경과 신학」, 제 6권, 서울: 임마누엘, 1988.
- 장훈태. “칼빈의 기도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 칼빈학회 역음,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8.
- 최병남. “예배에 대한 성서적 이해”, 「성경과 신학」, 제 6권. 서울: 임마누엘, 1988.
- 한철하. “요한 칼빈의 목회신학”, 「아신」, 제 2집. 양평: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교, 1988.
- \_\_\_\_\_. “칼빈 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칼빈 신학 해설」, 한국 칼빈 학회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8.
- 홍정수. “찬양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목회와 신학」,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 B. Warfield, Benjamin. “칼빈의 신지식 교리에 대하여”,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윌리엄 팩 암스트롱 편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9.
- Calvin, John. “사들렐에 대한 칼빈의 응답”, 「칼빈의 종교 개혁 사상」,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6.

## ABSTRACT

### WORSHIP AS THE PURPOSE OF CALVIN'S THEOLOGY - THE MEANING OF THE TRUE WORSHIP IN CALVIN'S THEOLOGY -

Kim, Kuk-Jung

Th. M. in Systematic Theology

The Graduate School

of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Calvin was interested in worship. His book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s a worship guideline which helps to guide believers who want to practice biblical worship by presenting basic truth on true worship before God. The God-oriented theory of Calvin and the soteriological structure of *The Institutes ultimately* concentrate on worship. Worship is the purpose of his theology rather than being only one of the subjects of his theology. Calvin claims that we should practice true worship according to the Bible. He emphasized that worship should be both biblical and theologically correct.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 is based on his whole dogmatics and the exaltation of God, not man. The matter of sovereignty of God was extensively dealt with in his theology and the aim of human life is for God's glory. Calvin sai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orship is to

progress spiritually through the worship for God who exists for our salvation as our Creator and Redeemer. We are not able to correctly worship for God with our human view only before we realize the essential nature and work of God. Because of our sin, we are unable to understand God's purpose. So the knowledge of God, as our Creator and Redeemer enables us to worship the Lord truly and to realize the benefit of meditating on the future life. God's purpose for our salvation is to enable us to offer true worship. True worship derives from God's salva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Spir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rue worship.

The Holy Spirit clarifies our salvation in our lives and also enables us to experience whole hearted worship of the Lord. The worship which is not prompted by Christ in the Spirit consists of just rite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Lord. The worship which is guided by the Spirit should come through God working in the believer's life. Repentance means to worship God without any hesitation out of our devotion for his holiness and righteousness. Also the results of repentance may be linked with justice and mercy for our neighbors.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Self-denial in Calvin is devotion for God and neighbors. In worshipping God, self-denial involves a pure heart toward God and giving a helping hand to neighbors. A holy life needs a humble attitude by asking the Lord ceaselessly for help to overcome our shortcoming.

Righteous worship combined with a holy life glorifies of Lord, which is the highest goal that humans ought to pursue so that the salvation of human souls can be accomplished.

Calvin said clearly that the purpose of church is also for worship. Worship is accomplished through the church so that the glory of Lord is well preserved on earth and the Kingdom of Christ is maintained in a good state. The public worship of the church is given as an external way to accomplish this. The worship is offered in a state of distinction with holiness by God's elect. The church is the association for worship. Calvin said that if it were not for worship, the church could not be the church anymore. The church has the responsibility to lead Christian worship and to honor the Lord faithfully. The church is not a worldly community but a worshipping community that serves the Lord. For this, the Lord gave authority to the church. It is a serving authority in that it helps those who worship Lord honestly as the people of God. The Roman Catholic Church fabricated the worship of the Lord impiously under the pretext of the church's authority and especially perverted such worship for political purposes.

Calvin pursued only that worship which is according to the knowledge of God. And he insisted that we should be faithful to the Bible, and we ought to discard any idolatry and fetishes made by humans. And Calvin also pursued spiritual worship offered to Lord in

the Holy Spirit and sincerity by the Christian who has received a salvation from Lord and has become a spiritual offering with a broken spirit which is faithful to the purpose of salvation. He desired that the church offer a the balanced worship that is in harmony with a ceremony which helps an impious person and the spiritual freedom with the authority given by the received from Lord.

The Korean church must be restored to the true worship, as Calvin explained, so as to truly fulfill its spiritual mission. If the church only tries to induce a form of worship without seeking true worship, it is be neglecting its purpose as a true church. Calvin did not formulate a new worship ceremony in opposition to the corrupt Roman Catholic mass. He just tried to return to what the thing that the Lord prescribed in his teaching as a firm rule. Likewise the Korean church should pursue and preserve the biblical and theologically correct worship.